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달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04호 2025년 11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7층(주네브 쉼월드 메디컬동) 8호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이주배경 자녀, 지역사회가 키우는 포용의 장이 열린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영)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센터 실내체육관 특설 포럼장에서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돌봄환경 조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한 이번 포럼은 이주배경 아동의 성장 환경을 조명하고 지역 차원의 돌봄 및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기사 15면) 송하성 기자

외국인주민까지 품은 전국 최대의 공공도서관 '경기도서관' 문 열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이 10월 25일 드디어 문을 열었어요.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도서관은 ▲세상에 없던 도서관 ▲도서관들의 도서관 ▲국내 최대 규모 공공도서관 ▲기후 도서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도민들의 기대를 받았어요. 9년여의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문을 연 것이예요.

경기도서관은 기존 책을 읽는 도서관을 넘어, 도민이 함께 배우고,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 분명 달라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주민이나 다문화가족은 자녀와 함께 도서관에 자주 방문해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책을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하는 아

이는 공부를 잘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할 거예요.

전국 최대 공공도서관

경기도서관을 짓기 위해 총사업비 1,227억원이 들었어요, 연 면적은 27,795㎡(지상 5층·지하 4층)예요. 가히, 전국 공공도서관 가운데 최대 규모예요. 지하 2~4층은 주차장이며, 방문 시 2시간 무료 주차를 지원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은 도서 열람과 체험, 전시, 창작공간으로 구성됐어요.

장서는 총 34만 4,216권으로, 도서가 14만 8,181권, 전자책이 19만 6,035권에요. 경기도는 향후 5년 내 도서 25만 권, 전자책 30만 권 등 최대 55만 권까지 장서를 확대할 계획이에요.

외국인까지 '포용의 공간'

경기도서관의 2층 '포용의 공간'은 어

린이, 청소년, 다문화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에요.

'세계친구책마을'에서는 영어, 스페인, 프랑스, 베트남 등 22개 언어로 제작된 다양한 책을 비치해 도서관을 찾아온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독서 서비스도 선보여요. 이른바 책 읽어주는 서비스인데, AI가 음성을 학습해 가족의 목소리로 아동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일정 분량 정도의 책을 읽으면 인공지능이 이를 학습해 나머지 부분, 혹은 다른 책도 학습된 엄마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서비스예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등 모든 가족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요.

도서관 이용도 편리하게!

경기도서관은 개관일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운영돼요. 월~금요일까지는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회원제도는 일반회원과 도민회원으로 나뉘어요. 실명인증만 하면 일반회원, 거주지 인증까지 하면 도민회원이 돼요.

시범운영 기간에는 일반회원의 경우 1회 3권, 15일간 대출이 가능해요. 내년부터는 1회 5권·7일 연장제도가 도입돼요. 도서 대출·반납은 키오스크로 운영돼요.

도민회원은 일반회원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15일간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추가해서 받을 수 있어요. 무료 택배 서비스도 운영해요. www.library.kr <중국어 5면, 베트남어 28면, 러시아어 5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7 오산 8~9 구리 10~11 남양주 12~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평택 22~26 용인 27~29 연천 30 과천 31 성남 32 화성 33~36

중국어(Chinese) 中文 5, 28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9, 11, 25, 28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5, 13, 17, 23, 34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9, 14, 17 영어(English) 23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3, 8, 10, 17, 18 나의 학습 My Study 8, 12, 16, 22 보건 Health 20, 21 여가 Leisure 31 행사 Event 2, 15, 27, 29 육아 Child Care 11, 34 이주배경청소년 4 도서관 Library 1, 5, 28 복지 Welfare 30 환경 Environment 부동산 Real Estate 7 비자 Visa 9, 23, 28 경기외국인SNS기자단 13, 14, 17, 25 노동 Labor 7, 13 범죄예방 14 외국인근로자 2, 17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25



전국에서 가장 앞선 이주민 정책 제도화, 경기도가 자랑스럽다!

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정부·지자체 역할 및 제도 강화 논의



경기도는 지난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민주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진보당) 등과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이인애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대순 부지사는 "경기도에만 81만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제는 조례 제정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해 이주민이 존중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해철 의원은 "제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주민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도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3대 조례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배제 없이 이주민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좌장은 이자스민 한국문

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맡았다.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 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설 교수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이민사회로 평가되지만 인권보장 체제는 초기 단계"라며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인권 정책 모델로 훌륭하며, 전국 확산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인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관리와 지방정부의 현장중심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도 "경기도 인권보장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제도개선과 광역단위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면

서도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 이주민 정책을 제도화하고 실현하는 경기도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과 OECD 국가 사례를 들어 인권 중심 거버넌스 구축을,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이주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주민 인권보장 정책의 현장 실효성 강화, 이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에서 9월에 제정된 3대 조례는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이다.

송하성 기자

방성환 의원,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안정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기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0월 3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 특강 강사로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의무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약 800명의 농업 고용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이전 교육에는 약 100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방 위원장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및 숙식비 공제 기준, 인권침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법률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 위원장은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고용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는 구조적인 인구 감소와 직결되어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노동환경개선과 인력 정책 지원을 통해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

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법과 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서로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근로자에게는 안전과 권리가, 고용주에게는 예측가능한 안정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은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및 시군 마을노무사들이 함께 참여해 근로계약서 작성, 숙소 기준, 산업재해 예방, 성희롱 방지,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주제의 실무 교육이 병행되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 자조모임은 지난 10월 25일 수원천에서 열린 ‘다함께 즐기세류 제1회 수원천축제’에 참여해 다양한 공연과 봉사활동을 선보였다.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으로,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야금 동아리와 춤 동아리가 무대에 올라 공연을 펼쳤다.

가야금 동아리는 전통의 멋을 살린 곡 ‘흥’을 연주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으며, 춤 동아리는 라틴 음악에 맞춰 ‘Gasolina’와 ‘Tropicoqueta’를 선보여 현

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또한, 봉사활동에 나선 페이스페인팅 자조모임은 현장을 방문한 시민과 어린이들에게 다채로운 페이스페인팅 체험을 제공해 현장을 더욱 밝고 활기차게 만들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류소통공간 담당자는 “다문화가족이 지역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11월, 축제가 넘치는 수원서 즐겨요

광고빛깔림축제, 런앤섬 페스티벌, 체험프로그램 등

수원시 공원 곳곳에서 11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가 열린다. 다문화가족도 어떤 행사가 진행되는지 유심히 살펴보자.

먼저 수원수목원 야간 개장이 이어진다. 수원수목원의 가을 야간 운영 프로그램인 ‘밤빛 정원’(10월 3일~11월 1일, 매주 금·토, 일·월·영흥 수목원)이 11월에 시민들을 맞는다. 11월 1일에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전국 청소년·청년 댄스 경연대회(만석공원 제2야외음악당) ▲광고 빛깔림축제 (광고역사공원) ▲2025 런앤섬 수원 페스티벌 (서호공원 잔디광장) 등 문화 행사가 진행된다. 2일에는 고색역 수인선상부공원 일원에서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행사 오늘무해! 페스티벌이 열린다. 서호공원에서는 동절기 아침체조교실과 같은 생활체육

교실이 열린다. 광고산 등 8개소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만석공원에서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11월 1~22일에는 유아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아숲 체험프로그램 ‘겨울을 준비하는 숲’ 시즌이 열린다. 역사·문화·생태를 아우르는 ‘수원팔색길 행복걷기’, 대중음악·무용·미술·악기연주가 펼쳐지는 ‘새빛동행길(새빛 동네가 행복한 길거리 공연)’도 효원공원 등 18개소에서 연중 진행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매일매일 축제 같은 일상을 즐기고, 언제든지 공원을 찾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11월 한 달 동안 공원 곳곳에서 열리는 마을축제와 문화행사가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수원다가, NIE(신문활용교육)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결혼이민자들의 직업능력개발과 취업 지원을 위해 ‘NIE(신문활용교육)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지난 10월 14일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신문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시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워 자녀교육은 물론 직업역량까지 향상할 수 있도록 기획된 실무형 자격증 과정이다.

‘NIE(Newspaper in Education)’는 신문을 교육에 활용해 사고력·비판력·표현력을 길러주는 창의적 학습법이다. 신문 기사와 사진, 광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학습자 스스로 사회를 분석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혼이민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이를 자녀교육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연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교육은 ▲신문 기사 분석 및 교육 활용법 ▲창의적 사고력 향상 활동 ▲수업 기획 및 실습 ▲자격시험 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료 후에는 NIE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활용해 지역사회 평생교육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도서관, 방과후 학교, 문화센터 등에서 NIE 강사, 독서지도사, 자녀 학습코치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지역화폐 추가 인센티브 지급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소비촉진 캠페인(10월 29일~11월 9일)’ 기간에 수원페이로 결제하는 시민에게 5% 캐시백을 지급한다. 수원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이 자동 지급된다. 지급 한도는 1인당 1만 원이다. 지급 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인센티브나 정책 수단 결제분은 제외된다.

수원페이는 관내 전통시장, 음식점, 소상공인 점포 등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용처와 동일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원페이 앱으로 충전·결제할 수 있으며, 이벤트 기간에 결제 금액에 대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인센티브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이주배경청소년 진로·취업 지원 협약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와 한국폴리텍II대학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센터장 윤영민 요셉)는 지난 10월 20일 한국폴리텍II대학 산학협력단(단장 김성곤)과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 진학 지원을 넘어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 연계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과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직무훈련 및 자격취득 과정 연계 ▲진로 및 취업 상담 ▲현장 중심 인턴

십 및 취업 기회확대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단순한 학업 지원을 넘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진로·취업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직업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하는 첫 협력사례로,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자립역량 강화와 고용기회 확대에 의미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031-247-1324 김영의 기자

수원 자원순환 체계 강화한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투명페트병을 효율적으로 회수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장안·팔달·권선·영통구에 5대씩 총 20대를 설치됐다. 수원시청 별관 외부 공간, 일부 쓰레기 거점배출시설(세류2동, 매탄4동) 자원순환역 등 시민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설치했다.

무인회수기에는 생수병 등 투명페트병만 투입할 수 있다. 1인당 1일 최대 100개까지 투입할 수 있다.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 후 사용할 수 있다.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1포인트당 1원)가 적립된다.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해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자원순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Feel at home in Suwon

수원시 국제교류협력센터
Suwon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2025 Suwon Family Day : Home Visit Guest Recruitment

2025. 10. 29. (Wed) ~ 11. 16. (Sun)

How to apply

- Apply from October 29th(Wed) to November 16th(Sun), 2025
- For 20 International Students enrolled at universities in Suwon
- Fill out the Google form via QR code

Program Schedule

- 10:00~10:05 | Opening Ceremony
- 10:05~10:25 | Matching Session: Host & Guest Pairing and Guidance
- 10:25~10:30 | Group Photo
- 10:30~11:30 | Cultural Experience
 - The Suwon Youth International Art Exchange Exhibition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 11:30~19:00 | Home Visit Experience
 - Lunch and Dinner with Host Family
 - Special family activities or free tour/exchange around Suwon
 - Optional: Cultural activities or Craft experiences
- 19:00~20:00 | Closing

Program Overview

Date | November 22nd(Sat) 2025, 10:00 ~ 20:00

Venue | Suwon Manseok Gallery & Host Families

※Meeting Point: Suwon Manseok Gallery, 10 AM

Participation fee | Free of charge

Host | Suwon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031) 226-3410 ✉ yeha25@swic.or.kr

수원시
수원시국제교류협력센터
Suwon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수원시
수원시국제교류협력센터
Suwon Center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꼭! 챙겨야 하는 자동차 관리 의무 사항

모든 차량은 의무보험(책임) 가입

-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 단 1일의 미가입이 발생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보험 기간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 미가입 상태로 양도 또는 차량 말소되는 경우는 사후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보험 차량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2의 사유에 해당 시 보험 면제 신청 가능

나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차량 검사는 필수

- 실제 운행을 하지 않아도 차량 말소되지 않는 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뒷면의 검사유효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기간이 지난 차량을 매수한 경우 명의 이전일로부터 31일 안에 검사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사유에 해당 시 유효기간 연장 신청 가능

과태료 부과 기준

의무보험 미 가입	용도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최고금액
		1일~10일	11일 이상	
	자가용	15,000원	+6,000원(1일당)	900,000원
	영업용	65,000원	+18,000원(1일당)	2,300,000원
검사 미필 검사 지연	용도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		최고금액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구분없음	20,000원	+10,000원(3일당)	300,000원

▶ 보험 문의 : 개별 보험사 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myicar.kidi.or.kr)

▶ 검사 문의 : TS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과태료 문의 :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검사보험팀
검사 담당 ☎228-4362, 4363, 보험 담당 ☎228-4376, 4377

수원시

面向外国居民的全国最大公共图书馆——&京畿道图书馆&正式开馆

金东延知事:“打造一个超越韩国唯一图书馆的、能让人们相互连接的空间”

京畿道(道知事金东延)广域代表图书馆京畿道图书馆终于在10月25日开馆了。位于水原市灵通区的京畿道图书馆被称为▲前所未有的图书馆▲图书馆中的图书馆▲国内最大规模的公共图书馆▲气候图书馆等,受到了道民们的期待。经过9年多的准备,终于正式开放。京畿道图书馆超越现有的阅读式图书馆,追求道民可以一起学习、制作、体验的开放平台,这一点与现有的公共图书馆明显不同。对子女教育感兴趣的外国居民或多文化家庭,经常和子女一起访问图书馆读书非常重要。读书多、喜欢读书的孩子肯定学习好,会成长为我们社会的重要人才。

全国最大的公共图书馆

为了建设京畿道图书馆,总事业费为1227亿韩元,总面积为27795㎡(地上5层,地下4层)。可以说是全国公共图书馆中规模最大的。地下2~4层是停车场,访问时免费停车2小时。地下一层到地上一至五层由图书阅览、体验、展示和创作空间组成。

藏书共34万4216册,图书14万8181册,电子书19万6035册。京畿道计划在今后5年内将藏书扩大到25万册图书、30万册电子书等,最多55万册。

外国人共享的“包容空间”

京畿道西馆的 2 层“包容空间”是儿童、青少年、多文化家庭共同享受的开放空间。在“世界朋友书村”里,准备了用英语、西班牙语、法国、越南等22种语言制作的多种书籍,让来到图书馆的外国人也能自由使用。

还将推出针对儿童的新的读书服务。这就是AI朗读服务,AI可以模仿声音,用家人的声音给儿童读书。例如,妈妈只需朗读一部分书,AI就能学习她的声音,并用妈妈的语音继续读完剩余部分,甚至可以为其他书籍配音。爸爸、爷爷、奶奶的声音也都可以录入。

便捷的使用服务!

京畿道图书馆从开馆日开始到今年年末为止为试运营期。开放时间为周一至周五从早上10点到晚上9点,周六、周日从早上10点到晚上6点。京畿道计划在示范运营期限结束后反映道民的意见,确定运营时间。

会员制度分为普通会员和道民会员。只要进行实名认证,就可以成为普通会员,只要进行居住地认证,就可以成为道民会员。试运营期间,普通会员一次可以借3本,15天。从从明年起,将实行每次可借5本、可延长7天的制度。借书、还书通过自助服务机运营,为了儿童和残疾人的使用便利,可以调节机器高低。

道民会员除可享受一般会员服务外,还可额外享受为期15天的电子书借阅服务。此外,图书馆还为孕妇、12个月以下婴幼儿家庭、注册残障人士提供免费图书快递借还服务。www.library.kr

〈한글 기사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Открылся крупнейший в стране общественный библиотечный центр — Библиотек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открытая и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Губернатор Ким Донён: «Создадим не просто библиотеку, а место, с объединяющее людей»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губернатор Ким Донён) 25 октября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а Библиотеку Кёнгидо, являющуюся главным региональным библиотечным центром.

Фо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Библиотека, расположенная в районе Ёнтхон города Сувон, уже получила множество названий: «Библиотека, какой ещё не было в мире», «Библиотека всех библиотек», «Крупнейш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страны», «Экологиче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После более чем девяти лет подготовки она наконец открыла свои двери. Библиотека Кёнгидо отличается от обыч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библиотек: она не просто место для чтения, а открытая платформа, где жители могут учиться, создавать и получать опыт вместе.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х в обучении детей,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регулярно приходить с детьми и читать вместе. Ребёнок, кото

рый любит книги и много читает, естественно лучше учится и вырастает важным членом общества.

Крупнейш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страны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Библиотеки Кёнгидо было потрачено 122,7 млрд вон, общая площадь здания — 27 795 м² (5 этажей над землёй и 4 под землёй).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рупнейш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библиотека в Корее.

Подземные этажи 2–4 занимают парковку (2 часа бесплатного паркинга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С подземного 1 этажа до 5-го наземного располагаются зоны для чтения, выставок, творчества и интерактивного опыта.

Фонд библиотеки насчитывает 344 216 единиц, из них:

- печатные книги — 148 181 том,
- электронные книги — 196 035.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пяти лет Кёнгидо планирует увеличить фонд до 550 000 экземпляров (включая 250 000 печатных и 300 000 электро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всех —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цев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библиотеки соз

дана зона «Пространство принятия» — открытое место, где могут вместе проводить время дети, подростки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В «Мировой книжной деревне» собраны книги на 22 языках, включая английский, испанский, французский, вьетнамский и другие, чтобы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могли свободно читать и пользоваться библиотекой.

Также внедрена новая услуга для детей — AI-сервис «чтение вслух».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может обучиться голосу членов семьи и читать книги ребёнку именно этим голосом. Например, если мама прочитает вслух часть книги, AI изучит её голос и сможет дочитать оставшуюся часть или другие книги тем же голосом. Можно записать также голоса папы, бабушки или дедушки.

Удобное пользование библиотекой

Библиотека работает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с момента открытия и до конца этого года: понедельник–пятница; суббота–воскресенье: 10:00–18:00.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тестового периода часы работы будут скорректированы с учётом мнения жителей.

Система членства разделена на обычн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и жителей провинции:

- пройти простую проверку личности — обычный член;
- подтвердить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 член-житель провинции.

Во время тестового периода обычные члены могут брать до 3 книг на 15 дней. С будущего года ввод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брать до 5 книг с продлением на 7 дней.

Книги можно брать и возвращать через интерактивные киоски, высоту которых можно регулировать для детей и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Члены-жители провин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олучают доступ к электронным книгам на 15 дней. Кроме того, для беременных, родителей с младенцами до 12 месяцев 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валидов действует бесплатная доставка книг на дом. Подробнее — www.library.kr

Иностранные SNS-журналисты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Papaaya Story является оператором программы иностранных SNS-журналистов Кёнгидо 2025 года.) 〈한글 기사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Guidelines for Proper Household Waste Disposal

Transparent PET Bottles (Beverages, Water)

Step 01 Empty



Step 02 Rinse



Step 03 Separate materials



Step 04 Do not mix



Paper Packs (Milk, Soy Milk, Liquor Cartons)

Ensure all contents are emptied and bottles are rinsed clean before disposal.



Metal Cans (Beverage, Beer, Food Cans)

Remove non-metal materials from metal cans (Plastic lids, etc.)



Glass Bottles (Beverage, Wine, Soju Bottles)

Empty, rinse, and avoid contaminants (No cigarette butts, etc.)



Waste Batteries

Always separate items from their components before disposal.



- Mixing waste batteries can lead to large fires
- Exchange 20 waste batteries for 2 new ones (Community Service Centers, Resource Recovery Facilities, Suwon Sports Cultural Center)

Non-Combustible Waste

Purchase PP bags for disposal at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 Dispose of broken glass and other materials (fluorescent lights, light fixtures, bottles, mirrors, pottery, ceramic dishes, sand, soil)

Schedule your free appliance collection.

1599-0903

www.15990903.or.kr

Food Waste Preparation



Squeeze out moisture from food waste (reducing volume by over 10%)



Remove non-organic materials from food waste (disposable plastic bags, toothpicks)



Rinse high-salt foods before disposal (pickles, kimchi)



Cut large items into smaller pieces for disposal (watermelon, etc.)



Dispose in designated containers or standard waste bags (food waste)

Trash disposal schedule (Avoid disposal on Saturdays and Sundays)

1. Placement for disposal: In front of your residence or store
2. Time for disposal: Between 8 p.m. and 5 a.m. the next day

수원특례시

घरेलू कचरे के नपितान का सही तरीका

पारदर्शीपीईटीबोतल (पेय, बॉलबंदपानी)

Step 01 खाली



Step 02 कुल्ला



Step 03 अलग



Step 04 मलिन नहीं



पेपरपैक (दुधकाकार्टन, सोयादुधकाकार्टन)

सामग्री को खाली करे और पानी से अच्छी तरह धो ले।



धातुकेडब्बे (पेयकेडब्बे, बीयरकेडब्बे, खाद्यबर्तनकेडब्बे)

धातु के डब्बे और प्लास्टिक के ढक्कन जैसी अन्य सामग्री को हटाना



कांचकीबोतल (पेयकीबोतल, बर्तनकीबोतल, सोयादुधकीबोतल)

सामग्री को खाली करे और पानी से धोएं। इसमें सगिरेट के टुकड़े जैसी कोई बाहरी वस्तु न डालें।



बैकार बैटरियां

उत्पादसेअलगकरनाऔरउसकानपितानक रनासुनशिक्षितकरें।



- पर्युकुल्लबैटरियोंकेमिश्रितनपितानसेबड़ीआ गलमसकतीहै।
- उपयोगकीगई20 टरियोंकीनईबैटरियोंसेबदले (डोंगएश्यासंस्कृतिककल्याणकेंद्र, संसाधनपुनरुत्पत्तिविभाग, सुनखेलऔरसंस्कृतिकेंद्र)

गैर-दहनशील अपशिष्ट

एश्यासंस्कृतिककल्याण केंद्र से पीपी बैगदाने कर्य कर उनका नसितान करें।



- टूटे हुए कांच के सामान (फ्लोरोसेंट रोशनी, एकाथ जुझार, बोतलें, दर्पण), चीनी मिट्टी के बर्तन, रेत या गंदगी, आदि।

बैकार पड़े घरेलू उपकरणों के नशिलक ऑन-साइट संग्रह के लिए आरक्ष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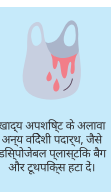
1599-0903

www.15990903.or.kr

खाना बर्बाद



पानी को डसिआल करने से पहले जहिन रमय हो उली नी नीकेलने के लिए उसे नशिल ले। (केवल पानी डालकर जलाने को 10% से जाली जल कोषा जा सकाक है)



खाद्य अपशिष्ट के अलावा अन्य वरिशी घटारप, जैसे डसिपोजल प्लास्टिक बैग और दूपपक्षि हटा दें।



नमकीन सॉस और कपिपी को फेकने से पहले पानी से धो लें।



तरबूज जैसी बड़ी वस्तुओं को छोट-छोट टुकड़ों में काट दें और उनका नपितान कर दें।



खाद्य अपशिष्ट का नपितान एक समरपति खाद्य अपशिष्ट केंद्र या मासु-आपसीरि खाद्य अपशिष्ट बैग में करें।

कूडानसितारणकामय (नमशिलकऔरवर्तिलककेडसुटनही)

1. डसिआल स्थान: मेरा घर या मेरी दुकान के सामने
2. डसिआल समय: हर दिन रात 8 बजे और अगले दिन सुबह 5 बजे

수원특례시

正しい家庭ごみの処理方法

透明ペットボトル (飲料、ミネラルウォーター)

Step 01 空にする (捨てる)



Step 02 すすぐ



Step 03 分離する



Step 04 混ぜない



紙パック (牛乳パック、豆乳パック、焼酎パック)

中身を空にして水できれいにすすいで捨てる



金属缶 (飲料缶、ビール缶、缶詰の缶)

プラスチックのふた等金属缶と異なる材質の物を取り除く



ガラスの瓶 (飲料水の瓶、ワインの瓶、焼酎の瓶)

中身を捨て水ですすぐたばこの吸い殻等異物を入れないこと



使用済み乾電池

必ず製品から分離して捨てる



- 使用済み乾電池を製品から分離せず捨てるると大型火災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ります。
- 使用済み乾電池20個を、新しい乾電池2個と交換 (前 行政福祉センター、資源回收施設、水原体育文化センター)

不燃性廃棄物

行政福祉センターで PP袋という袋を購入し捨て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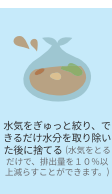
- 割れたガラス製品 (蛍光灯、照明器具、瓶、鏡)、瀬戸物、陶磁器の器、砂や土、等

家電廃棄物 無償訪問回収 予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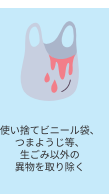
1599-0903

www.15990903.or.kr

生ごみ



水気をぎゅっと絞り、できるだけ水分を取り除いた後に捨てる (水気をとるだけで、排出量を10%以上減らすことができます。)



使い捨てビニール袋、つまようじ等、生ごみ以外の異物を取り除く



塩気の多い醤油、味噌、コチュジャン等やキムチは水ですすいで捨てる



体積の大きいスイカ等は細かく切って、小さくして捨てる



生ごみ専用容器または市の指定の生ごみ袋に入れて捨てる

ごみを捨てる時間 (土、日曜日は捨てるのを控える)

1. 捨てる場所: 自宅または自店舗の前
2. 捨てる時間: 毎日午後8時から翌日の午前5時

수원특례시

生活垃圾正确处理办法

透明塑料瓶 (饮料、矿泉水)

Step 01 清空



Step 02 冲洗



Step 03 分类



Step 04 不掺杂



纸盒 (牛奶盒、豆奶盒、烧酒盒)

清空内容物，用水彻底冲洗干净后排放



金属罐 (饮料罐、啤酒罐、罐头)

去除塑料盖等金属罐和其他材质



玻璃瓶 (饮料瓶、红酒瓶、烧酒瓶)

清空内容物用水冲洗请勿放入烟头等异物



不掺杂

必须从产品中分离开排出



- 废电池的混合排放会导致大型火灾。
- 20个废电池可以换成2个新电池 (在源行政福利中心、资源回收设施、水原体育文化中心可以交换)

不可燃性废弃物

行政福利中心购买PP袋后排放



- 碎玻璃制品 (荧光灯、照明器具、瓶子、镜子)、瓷器、陶瓷器皿、沙子或泥土等

预约废旧家电免费上门回收

1599-0903

www.15990903.or.kr

食物垃圾



最大限度地去除水分后排出。(仅去除水分就可减少10%以上的排放量)



去除一次性塑料袋、牙签等食物垃圾以外的异物



盐分多的酱类及泡菜需用水冲洗后排出



将体积大的西瓜等切成小块后排出。



排放到食物垃圾专用容器里或专用量制食物垃圾袋中

垃圾排放时间 (周六、周日禁止排放)

1. 排放场所: 自家或自家店铺前
2. 排放时间: 每天下午8点到第二天凌晨5点

수원특례시



'찾아가는 이주민 무료 법률상담' 운영 수원이주민센터에서 변호사, 노무사 등이 법률 상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10월 19일 수원 이주민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했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날 상담에는 노무사와 변호사들이 참여해 임금체불, 근로계약, 산업재해 보상, 체류 자격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주 겪는 법률문제를 상담했다.

미얀마어 등 4개 국어 통역을 지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일을 겪어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며 "이번 상담이 이주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이주민센터는 회원들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외국인주민 지원 민간단체이다. 설립 이래 지역사회 외국인주민의 복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수원시, 다문화가족 힐링캠프 가족의 소중함 다시 느껴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8~19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힐링캠프'를 열었다.

다문화가족 40여 명이 참여해 가족협동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교육, 카라반 캠핑,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했다.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은 "다문화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화합할 수 있었다"며 "문화적, 언어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수원시 전지역 확대해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10개 동에서 시범 운영했던 '수원새빛돌봄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를 11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수원시 모든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수원시는 시범 운영에서 시민 만족도와 안전성을 확인했고, 최근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생한 아동 유인 시도 사건 등으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동행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행돌봄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자녀 등하교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이 대상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포함된다.

기준 중위소득 150%(4인 기준 914만6000원) 이하 가구에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 6900원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존보다 이용 편의성이 개선됐다. 학교 중심이던 이동 지원 범위가 돌봄 기관과 교육기관까지 확대됐고, 1일 이용 횟수 제한이 폐지됐다. 또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됐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빛돌봄'은 해당동에 거주하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다. 제공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안전교육을 진행했고, 산재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수원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앞으로 아동 교통안전, 응급처치,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교육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장안·팔달·영통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시장 과열 조기 차단 위해 규제지역 지정 조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이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10월 16일부터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타난 주택 가격 상승세를 안정화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치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군구를수원 장안·팔달·영통구, 광명, 과천, 의왕, 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원시의 경우 허가 대상 용도는 아파트다. 허가대상 허가구역의 효력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내 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는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부동산 금융 규제가 강화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시가)에 따라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비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강화(기존 70% → 토지거래허가구역 40%) 등 대출 규제도 즉시 시행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 거래 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화를 위한 사전 대응"이라며 "아파트 매수시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반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문화가족도 관련 내용을 기억해야겠다. 문의 수원시 토지정보과 031-5191-2384

송하성 기자

'정(情)이 가득한 전통된장체험'

오산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사업 진행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지난 10월 21일 오산시새마을회관에서 결혼이주여성 10명을 대상으로 '정(情)이 가득한 전통된장체험'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체험은 2025년 다문화가족초기정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발효음식인 된장을 직접 담그며 전통 식문화의 의미를 배우고, 한국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미리 준비된 된장을 담그며 정성과 기다림의 가치를 체험했다. 또한 각자의 나라에서 즐겨 먹는 발효음식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

기를 나누며, 다양한 문화의 공통점을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험에 참여한 한 결혼이주여성은 “된장은 냄새가 강한 음식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직접 담가보니 정성이 담긴 전통음식이라는 걸 느꼈다”며 “한국의 음식을 배우며 마음이 한층 가까워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오산시새마을회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한국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오산시 오색전 결제 시 5% '캐시백 지급' 특별 이벤트

오산시가 11월 9일까지 전국 소비진작 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참여해 지역화폐 오색전 결제 시 5% 캐시백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는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기획된 전국 단위 통합 할인축제로 오산 지역 연매출 3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업소에서 오색전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가 즉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된다.

20만 원을 결제할 경우 1만 원이 자동 환급되고 사용자 1인당 최대 한도는 1만 원이 적용된다.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지역화폐 앱에 오색전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지급 내역은 앱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오색전 충전 인센티브 10%에 결제 캐시백 5%가 더해져 이벤트 기간 최대 15%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오산시는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오산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전통체험(전통주, 전통공예)' 참가자 모집해요

오산시가족센터(센터장 이병희)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추진되는 다문화가족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초기정착지원사업 「전통을 빛고 나를 빛다」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문화적 자긍심 및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통공예(도자기)' 체험은 오는 11월 22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된다. 도자기 머그잔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핸드페인팅 활동으로, 가족 간 소통을 통해 창의적 표현의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참가 대상은 다문화가족 30명(부모+자녀)이며, 모집 기간은 11월 16일(일)까지이다.

이어지는 '전통주 체험'은 12월 20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산양조(시장길 63)에서 진행된다. 이번

체험에서는 전통주의 역사와 제조 과정을 배우며, 한잔의 온기에 담긴 정성과 문화의 깊이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 대상은 다문화가족 부부 10쌍이며, 모집 기간은 11월 24일(월)부터 12월 7일(일)까지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오산시가족센터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 확정자는 모집 마감 후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2팀(☎ 070-4336-1406)으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문화가족초기정착지원사업
: 전통을 빛고 나를 빛다

전통공예(도자기) 체험

: 문화로 물들고, 마음으로 만나는 도자기 핸드페인팅

일 시 11월 22일 (토) 오전 10-12시
대 상 다문화가족 30명 (부모+자녀)
체험장소 오산시자원봉사센터 3층 프로그램B
모집기간 10/31 (금) ~ 11/16(일)
신청방법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참여확정은 개별안내)
문 의 070-4336-1406 가족지원 2팀

사랑의열매
오산시가족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다문화가족초기정착지원사업
: 전통을 빛고 나를 빛다

전통주 체험

: 한잔의 온기로 이어지는 우리

일 시 12월 20일 (토) 오전 10-12시
대 상 다문화가족 부부 10쌍
체험장소 오산양조 (시장길 63)
모집기간 11/24 (월) ~ 12/7 (일)
신청방법 오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참여확정은 모집마감 후 개별안내)
문 의 070-4336-1406 가족지원 2팀

사랑의열매
오산시가족센터

2025년 가족친화 프로그램
우리가족나들이

★접수기간 10/24(금) 09:00~10/30(목) 16:00
11/3(월) 10:00 이후 참여 확정가족에 한해 개별 안내

일 시 2025년 11월 8일(토) 10:00 ~ 자율귀가
*11/5(수) 17:00 부모-자녀관계 개선교육(온라인) 교육 참여 필수
- 교육 후 수료증과 교육 수강시간 제출 필수

장 소 캐리비안 베이 및 에버랜드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참 가 비 무료 [캐리비안베이 + 에버랜드 티켓 + 식권]
-11/8(토) 당일 사용 가능한 자유 이용권 으로 반드시 일정확인 후 신청
- 캐리비안베이 입장 후 13시 이후 에버랜드 이용 가능
- 수건, 수영복, 아쿠아 슈즈 등 개인 물품 지참

대 상 오산시민 180명 (신청순, 단 우선순위에 따름)
※ 우선순위 (해당 증명서류 필수 제출)
1.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
2. 3세대 가정
3. 다자녀 가정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분 인정

신청방법 네이버 폼 QR코드 스캔 신청
(해당 증명서류 네이버 폼 첨부)

문 의 031-376-3427. 가족지원 2팀

함께하는 변화
미래도시 오산

오산시가족센터
OSANGFAMILY CENTER

위탁운영법인
사단법인 나눔과 베품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ăng lực tiếng Hàn xuất sắc và chuyên ngành liên quan đến Hàn Quốc sẽ dễ dàng nhập cảnh hơn. 기업 맞춤형 인턴십 프로그램 신설

Trong thời gian tới, người nước ngoài có chuyên ngành liên quan đến Hàn Quốc và đạt trình độ tương đương TOPIK cấp 6 sẽ dễ dà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hơn.

Bộ Tư pháp (Bộ trưởng Jeong Seong-ho) cho biết, để tăng cường năng lực cạnh tranh toàn cầu của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ở nước ngoài và đáp ứng yêu cầu từ giới công nghiệp về việc cho phép nhân tài tiềm năng tại địa phương tham gia chương trình thực tập tại Hàn Quốc, bộ đã xây dựng 3 chế độ mới và sẽ bắt đầu thực hiện từ ngày 29 tháng 10.

Thứ nhất, ① những người có năng lực tiếng Hàn xuất sắc nhất (TOPIK cấp 6) thuộc chuyên ngành Hàn Quốc học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nước ngoài, và ② những người tốt nghiệp các trường đại học nằm trong top 200 của bảng xếp hạng các trường đại học thế giới, sẽ được nói lỏng hoặc miễn các điều kiện xin visa tìm việc/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giúp họ có cơ hội tự do hơn trong việc tìm kiếm việc làm tại Hàn Quốc.

Trong số này, 9 quốc gia gồm Việt Nam, Trung Quốc, Thái Lan, Nhật Bản, Ấn Độ,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và Philippines cũng được bao gồm trong danh sách, với điều kiện là tốt nghiệp các trường đại học khối khoa học kỹ thuật nằm trong top 1.000 của bảng xếp hạng QS.

Những người này sẽ được miễn yêu cầu tính điểm và

điều kiện tài chính khi xin visa tìm việc (D-10-1), và được miễn điều kiện về chuyên ngành và kinh nghiệm khi xét duyệt visa hoạt động đặc biệt (E-7).

Ngoài ra, ③ người nước ngoài dưới 29 tuổi, có bằng cử nhân trở lên trong lĩnh vực khoa học kỹ thuật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thuộc top 1.000 trong bảng xếp hạng QS của 9 quốc gia nói trên, và có năng lực tiếng Hàn tương đương TOPIK cấp 2, sẽ được cộng thêm 20 điểm khi xin visa tìm việc (D-10-1) và được miễn yêu cầu về kinh nghiệm khi xét duyệt visa hoạt động đặc biệt (E-7).

Thứ hai, Bộ đã thiết lập “Chương trình thực tập theo nhu cầu doanh nghiệp (K-Trainee)”, nhằm giúp ① sinh viên năm 3 trở lên (bao gồm cả học viên cao học và nghiên cứu sinh tiến sĩ) đang theo học tại các trường đại học nước ngoài được doanh nghiệp Hàn Quốc ở nước ngoài tài trợ và đào tạo thông qua hợp tác giữa trường đại học và doanh nghiệp, cũng như ② nhân tài nước ngoài đã được tuyển dụng vào các chi nhánh ở nước ngoài của doanh nghiệp Hàn Quốc, có cơ hội tham gia thực tập tại trụ sở chính ở Hàn Quốc để phát triển năng lực chuyên môn của mình.

Chính sách này được áp dụng cho 9 quốc gia châu Á đã nêu ở trên và sẽ được thí điểm trong 2 năm, sau đó mới quyết định việc mở rộng triển khai hay không.

Chương trình này không do người nước ngoài tự đăng

ký, mà do doanh nghiệp Hàn Quốc nộp đơn xin tại cơ quan xuất nhập cảnh – quản lý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ẩm quyền tại nơi doanh nghiệp đặt trụ sở.

Thứ ba, Bộ Tư pháp đã cải thiện chế độ visa tìm việc (D-10) nhằm hỗ trợ du học sinh tốt nghiệp các trường đại học tại Hàn Quốc trong việc tìm việc làm và ổn định cuộc sống.

Theo đó, thời gian cư trú bằng visa tìm việc (D-10) được mở rộng từ 2 năm lên 3 năm, đồng thời thời gian thực tập phục vụ cho việc tìm việc cũng được kéo dài tương ứng, phản ánh đúng nhu cầu thực tế của người lao động và doanh nghiệp.

Bộ trưởng Bộ Tư pháp Jeong Seong-ho cho biết: “Chúng tôi đã lắng nghe ý kiến thực tế từ hiện trường và xây dựng chính sách nhằm hỗ trợ việc đào tạo và tuyển dụng nhân tài tiềm năng mà các doanh nghiệp Hàn Quốc mong muốn, đồng thời tạo ra nhiều con đường khác nhau để thu hút nhân lực và đưa họ trở lại làm việc tại các chi nhánh ở nước ngoài, qua đó nâng cao năng lực cạnh tranh của doanh nghiệp.”

Ông cũng nói thêm: “Trong thời gian tới, chúng tôi sẽ tiếp tục xây dựng các chính sách hỗ trợ nhằm thu hút và giúp nhân tài định cư tại Hàn Quốc, phù hợp với nhu cầu thực tế của ngành công nghiệp.”

경기외국인SNS기자단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า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สูงและ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ด้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ศึกษา, จะสามารถเดินทาง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ได้ง่ายขึ้น 법무부, 기업이 원하는 인재 확보 지원

Nับจากนี้เป็นต้นไป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ด้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ศึกษาและ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า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 TOPIK ระดับ 6 จะสามารถ เดินทางเข้า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ได้ง่ายขึ้น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รัฐมนตรี จอง ชองโฮ) ประกาศว่าเพื่อเสริมสร้าง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ระดับโลกของบริษัทเกาหลีที่ขยายธุรกิจ 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เพื่อตอบสนองต่อ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ที่เรียกร้องให้ดึงดูดบุคลากรที่มีศักยภาพ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เข้าร่วม โครงการฝึกงานในเกาหลี จึงได้ประกาศใช้ 3 ระบบ และจะเริ่มดำเนินการตั้งแต่วันที่ 29 ตุลาคมนี้

ประการแรก, ①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ด้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ศึกษาจากมหาวิทยาลัยต่า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า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ยอดเยี่ยม (TOPIK ระดับ 6) และ ②ผู้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ด้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ศึกษาจากมหาวิทยาลัยที่อยู่ใน 200 อันดับแรกของการจัดอันดับมหาวิทยาลัยโลก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ผ่อนปรนหรือยกเว้นเงื่อนไขในการขอวีซ่าทำงานและวีซ่าทำงานในเกาหลี เพื่อ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สามารถหางานหรือทำงานในประเทศ ได้อย่างเสรีมากขึ้น ในบรรดานี้ ประเทศที่รวมอยู่ด้วย ได้แก่ เวียดนาม, จีน, ไทย, ญี่ปุ่น, อินเดีย, อินโดนีเซีย, มาเลเซีย, สิงคโปร์, ฟิลิปปินส์ รวม 9 ประเทศ โดยผู้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ด้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ศึกษาจากมหาวิทยาลัยสายวิทยาศาสตร์และวิศวกรรมที่อยู่ใน 1,000 อันดับแรกของการจัดอันดับ QS ก็จะได้รับสิทธิ์นี้เช่นกัน สำหรับบุคคลเหล่านี้ เมื่อยื่นขอวีซ่าทำงาน

(D-10-1)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ระบบคะแนนและข้อกำหนดด้านการเงิน

และเมื่อยื่นขอวีซ่าทำงานเฉพาะด้าน (E-7)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เงื่อนไขด้านสาขาวิชาและ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ำงาน

นอกจากนี้ ③ชาวต่างชาติอายุต่ำกว่า 29 ปี จาก 9 ประเทศข้างต้น ที่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ระดับปริญญาตรีขึ้นไปในสาขาวิทยาศาสตร์หรือ วิศวกรรมศาสตร์ จากมหาวิทยาลัยที่อยู่ใน 1,000 อันดับแรกของการจัดอันดับ QS และมี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ทางภาษาเกาหลี (TOPIK) ในระดับ 2

จะได้รับ คะแนนพิเศษเพิ่ม (20 คะแนน) เมื่อยื่นขอวีซ่าทำงาน (D-10-1) และ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เงื่อนไขด้านประสบการณ์การทำงาน เมื่อตรวจพิจารณาวีซ่าทำงานเฉพาะด้าน (E-7)

ประการที่สอง, ①นักศึกษาระดับปริญญาตรีขึ้นไป 3 ขึ้นไป (รวมถึงระดับปริญญาโทและเอก) ซึ่งกำลังศึกษาอยู่ในหลักสูตรที่ได้รับการ สนับสนุนและพัฒนาโดยบริษัทเกาหลี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ผ่านความร่วมมือระหว่างมหาวิทยาลัยกับ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ในพื้นที่ และ ②บุคลากรต่างชาติที่ได้รับการจ้างงานในสาขาหรือสาขาย่อยของบริษัทเกาหลีในต่างประเทศ จะสามารถเข้าร่วม “โครงการฝึกงานเฉพาะบริษัท (K-Trainee Program)” ที่จัดตั้งขึ้นใหม่ เพื่อพัฒนาทักษะและศักยภาพทางวิชาชีพของตนได้ในสำนักงานใหญ่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

โครงการนี้จะมุ่งเน้นไปที่ 9 ประเทศในเอเชียที่กล่าวถึงก่อนหน้านี้ โดยจะดำเนินการในรูปแบบโครงการนำร่องเป็นระยะ

เวลา 2 ปี ก่อนที่จะพิจารณาว่าจะขยายต่อหรือไม่ ทั้งนี้ โครงการดังกล่า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ยื่นสมัครได้โดยตรง แต่จะต้องให้บริษัทเกาหลี เป็นผู้ยื่นคำขอเข้าร่วมโครงการต่อสำ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หรือสำนักงานดูแล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นพื้นที่ที่บริษัทตั้งอยู่

ประการที่สาม,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วีซ่าทำงาน (D-10) เพื่อสนับสนุนการหางานและการตั้งถิ่นฐานของนักศึกษาต่างชาติ ที่สำเร็จการศึกษาด้านภาษาเกาหลีในเกาหลี จากเดิมที่สามารถพำนักอยู่ในเกาหลีด้วยวีซ่าทำงาน (D-10) ได้เพียง 2 ปี ได้มีการขยาย ระยะเวลาเป็น 3 ปี พร้อมทั้งขย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ฝึกงานที่เกี่ยวข้องกับการหางานควบคู่กันไปเพื่อให้สอดคล้องกับ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จริง

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จอง ชองโฮ กล่าวว่า “เราได้รับฟังเสียงจากภาคสนาม เพื่อจัดเตรียมเส้นทางเข้ามาอย่างหลากหลาย ที่จะช่วยสนับสนุนการพัฒนาบุคลากรที่มีศักยภาพ และการจ้างงานตา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ของบริษัทเกาหลี รวมถึงสามารถส่งบุคลากร กลับไปยังบริษัทสาขาต่างประเทศเพื่อเสริมสร้างความสามารถในการแข่งขันของบริษัท” และเสริมว่า “ในอนาคต เราวางแผนที่จะจัดทำ นโยบายต่างๆ เพื่อรองรับการจัดหาบุคลากรที่หลากหลายและสนับสนุนการตั้งถิ่นฐานในประเทศ โดยคำนึงถึง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จริงของ 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경기외국인SNS기자단



구리시가족센터(센터장 윤성은)와 (사)함께하는사랑발이 진행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알록달록 빛나는 미술놀이터’의 시상식 및 수료식이 지난 10월 18일 구리시가족센터 대교육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참여 아동과 학부모를 비롯해 윤성은 센터장, 양소영 (사)함께하는 사랑발 본부장, 도혜원 대리, 지혜영·지하영 아트앤북 미술교습소 강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수료식에서는 개인 작품 전시와 시상식이 함께 진행돼 아이들이 그동안의 성과를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전 회기 빠짐 없이 참여한 2명의 아동에게는

‘사랑발 특별상’이 수여되어 큰 박수를 받았다.

미술놀이터 프로그램에는 총 20명의 아동이 참여해 18명이 수료했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을 매개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창의력과 자존감을 높이고 가족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들은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키우고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부모들은 아이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지은 기자
자료 구리시가족센터

복지 정보, 먼저 알립니다 ‘안심든든 e-복지 알림톡’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에 따라 새롭게 복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안심든든 맞춤형 e-복지 알림톡’ 서비스를 10월 29일 발송하고, 11월 한 달간 집중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안심든든 맞춤형 e-복지 알림톡’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 가능 가구를 선별하고 맞춤형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리시의 특색사업이다.

특히 이번 알림톡 발송 대상에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에 따라 새롭게 지원 대상이 된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어, 더 많은 시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부터 추진돼 현재까지 총 110가구가 발굴되었으며, 이 중 74가구가 복지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청년의 일상에 성장과 힐링 더하다’ 구리시, 11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이벤트 달은 4가지 테마로!

11월 구리시 청년성장 프로젝트 & 청년카페

모집대상 구리시 거주 또는 생활권 청년 참여비용 무료 및 선착순 마감

교육장소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4층 * 구리시 간행물 67 번안당

신청방법 QR 접속 및 신청 * 프로그램 명 목적 신청 가능

자연과 함께 11월 08일 (토) 10:00 ~ 13:00 / 14:00 ~ 17:00

감각으로 느끼기 11월 15일 (토) 10:00 ~ 13:00 / 14:00 ~ 17:00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청년의 일상 속 성장을 응원하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11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10월 30일부터 11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4월부터 이어져 온 ‘청년 성장 프로젝트’의 마지막 일정이다. 11월 8일부터 구리

시 청년내일센터(건원대로 67, 한진빌딩 4층)에서 운영되며, 청년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스스로 성장을 점검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은 청년의 감성과 기술을 모두 채워줄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연과 함께(11월 8일)’ 프로그램은 테라리움·토달공예 체험을 통해 자연의 감성을 느끼며 힐링하는 시간을 제공한다. ▲‘감각으로 느끼기(11월 15일)’에서는 인절미 클래스와 수제 청 만들기 등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손끝으로 표현하기(11월 22일)’에서는 가족공예·전사 패턴 체험으로 창의적 자기표현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로 확장하기(11월 29일)’에서는 인공지능(AI) 콘텐츠와 웹서비스 제작 실습으로 청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는 고용노

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년 맞춤형 성장지원 사업으로, 구리시 거주 또는 생활권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왔다. 그동안 취·창업, 자기 이해, 감정 관리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의 자기 탐색·교류·역량 개발을 지원해 왔고,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11월 프로그램은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일정으로, 청년들이 배우고 휴식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영기관인 ㈜마이온컴퍼니(☎ 02-554-5654)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구리시청 031-557-1010 구리시가족센터 031-556-4139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031-566-2323 구리시여성노인회관 031-550-2951~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접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Ba quyền lợi về chăm sóc trẻ em, trông trẻ và văn hóa chỉ dành riêng cho người di cư tại tỉnh Gyeonggi 이주민도 누릴 수 있는 3가지 보육, 돌봄, 문화 혜택

Mở rộng hỗ trợ chi phí chăm sóc trẻ em cho con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ừ tháng 10, tỉnh Gyeonggi sẽ tăng mức hỗ trợ chi phí chăm sóc trẻ em cho con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ừ 100.000 won lên 150.000 won mỗi tháng.

Tỉnh Gyeonggi đã hỗ trợ 100.000 won mỗi tháng tiền học phí cho con em người nước ngoài (từ 0 đến 5 tuổi) đang theo học tại các nhà trẻ trong tỉnh kể từ năm 2023, nhằm giúp tất cả trẻ em được phát triển trong môi trường chăm sóc ổn định và không phân biệt đối xử.

Tuy nhiên, do giá cả sinh hoạt và học phí tăng cao gần đây, tỉnh đã quyết định tăng mức hỗ trợ thêm 50.000 won mỗi tháng để giảm bớt gánh nặng kinh tế cho các gia đình người nước ngoài.

Đối tượng và điều kiện hỗ trợ vẫn giữ nguyên như trước đây. Đối tượng được hỗ trợ là trẻ em người nước ngoài (từ 0 đến 5 tuổi) đã đăng ký cư trú và đang theo học tại các nhà trẻ trong tỉnh. Cả người bảo hộ và trẻ em đều phải cư trú tại tỉnh Gyeonggi ít nhất 90 ngày mới đủ điều kiện đăng ký. Người bảo hộ nộp đơn xin hỗ trợ phí chăm sóc trẻ, giấy chứng nhận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cùng các giấy tờ liên quan tại nhà trẻ mà trẻ đang theo học. Sau đó, khi được phát hành thẻ “Kkumin Haengbok (국민행복카드)” và thanh toán bằng thẻ này, họ sẽ được nhận hỗ trợ phí chăm sóc trẻ.

Bà Ko Hyun-sook, Trưởng phòng Chính sách Chăm sóc Trẻ em, cho biết: “Thông qua việc mở rộng hỗ trợ chi phí chăm sóc trẻ, chúng tôi sẽ giảm bớt gánh nặng nuôi dưỡng cho phụ huynh là người nước ngoài có con nhỏ, đồng thời cung cấp cơ hội chăm sóc

binh đẳng để tất cả trẻ em đều có thể phát triển khỏe mạnh. Chúng tôi sẽ nỗ lực hết mình để xóa bỏ các khoảng trống trong hệ thống chăm sóc trẻ.”

“Đăng ký ‘Thu nhập cơ hội chăm sóc trẻ em’

Ngày 12, tỉnh Gyeonggi thông báo rằng chỉ sau 1 năm triển khai chương trình ‘Thu nhập cơ hội chăm sóc trẻ em’, số lượng cộng đồng tham gia và số trẻ được chăm sóc đều đã tăng hơn 6 lần.”

“Thu nhập cơ hội chăm sóc trẻ em” là một chế độ hỗ trợ các hoạt động của cộng đồng chăm sóc trẻ em trong làng, được người dân tự nguyện thành lập nhằm lấp đầy những khoảng trống mà dịch vụ chăm sóc công chưa bao phủ hết. Chính sách này công nhận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giá trị xã hội của việc trông nom con cái của hàng xóm mà không nhận thù lao, đồng thời chi trả “thu nhập cơ hội” để khuyến khích sự tham gia.

Số tiền hỗ trợ từ năm nay sẽ được chi trả như sau: nếu tham gia hoạt động 30 giờ/tháng sẽ nhận 200.000 won, nếu tham gia từ 15 giờ/tháng trở lên sẽ nhận 100.000 won.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cũng có thể tổ chức cộng đồng chăm sóc trẻ em theo quốc tịch hoặc theo nhóm những người có cùng sở thích, tâm huyết.

Năm đầu tiên, vào tháng 9/2024, khoản thu nhập cơ hội đã được chi trả lần đầu cho 57 cư dân thuộc 23 cộng đồng làng, và đến tháng 9 năm nay, khoản này đã được chi trả cho 520 cư dân thuộc 150 cộng đồng ở 29 thành phố/huyện. Số trẻ được chăm sóc cũng tăng từ 524 trẻ lên 3.403 trẻ trong cùng khoảng thời gian. Việc đăng ký tham gia “Thu nhập cơ hội chăm sóc trẻ em” có thể thực hiện từ ngày 1 đến ngày 10

hàng tháng trên trang web Gyeonggi Minwon 24
(gg24.gg.go.kr).

“Dodamso 도담소” mở cửa tổ chức đám cưới nhỏ ở Tỉnh Gyeonggi sẽ mở không gian giao lưu của người dân “Dodamso 도담소” làm địa điểm tổ chức đám cưới nhỏ và hiện đang tuyển chọn cặp đôi đầu tiên. “Dodamso”, trước đây là dinh thự của Tỉnh trưởng, đã được tái cấu trúc thành không gian giao lưu cho người dân trong nhiệm kỳ thứ 8 của chính quyền dân cử. Nơi đây thường xuyên tổ chức nhiều hoạt động như biểu diễn văn hóa, trải nghiệm và các sự kiện đa dạng để gặp gỡ người dân.

Đám cưới nhỏ được tổ chức quanh năm, mỗi tuần một lần vào thứ Bảy và Chủ nhật. Lễ cưới diễn ra tại vườn ngoài trời, nhưng trong trường hợp thời tiết xấu hoặc vào mùa đông, sảnh tiệc lớn sẽ được sử dụng làm không gian tổ chức lễ. Số lượng khách mời giới hạn trong khoảng 100 người, và phí sử dụng khoảng 30.000 won. Cặp đôi có thể tự do lên kế hoạch cho toàn bộ buổi lễ, bao gồm tiến trình hôn lễ, trang trí và tiệc chiêu đãi.

Bất kỳ cặp đôi sắp kết hôn nào đang sinh sống tại tỉnh Gyeonggi hoặc người đang làm việc, học tập trong khu vực của tỉnh đều có thể tổ chức lễ cưới nhỏ tại Dodamso. Có thể đăng ký từ 6 tháng trước ngày cưới thông qua trang web Dịch vụ Chia sẻ Gyeonggi (share.gg.go.kr), điện thoại (031-8008-3716) hoặc đến trực tiếp để đặt chỗ. Kết quả phê duyệt và các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đặt chỗ sẽ được thông báo qua tin nhắn văn bản.

〈한글 기사 지난호 1면〉

경기외국인SNS기자단

A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이 대상이나, 일부는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분야에
한하여 외국인도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등으로 한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조,
「공무원임용규칙」 제109조에서 규정됩니다.


경기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 을
경기도청 핫라인 으로 알려주세요!

긴급복지 핫라인 ☎ 010-4419-7722
 긴급복지위기사담 콜센터 ☎ 031-120
 ☎ 경기도G톡 (카카오톡에서 채팅추가 후 채팅상담 가능)
 🏠 긴급복지 콜센터 홈페이지 (<https://www.gg.go.kr/welfarehotline>)



An illustration showing a large, stylized hand at the top, with fingers spread, as if protecting or supporting the people below. Below the hand, a family of six (two adults and four children) are standing and holding large red hearts.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sky with white clouds and stylized buildings.



아빠 양육 참여 및 성평등문화 확산
남양주시가족센터, '아빠랑 나랑 버블버블 세차' 진행

남양주시가족센터는 지난 9월 18일과 20일 이틀간 관내 'SA WASH 세차장'과 센터 일원에서 평행 온(ON) 가족 <아빠랑 나랑 버블버블 세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버지와 자녀 10가족 31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양성평등기금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독려하고 가족내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아버지 교육(ZOOM) 및 세차 활동을 통해 아버지의 돌봄과 성평등한 가족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남양주시가족센터는 추후 <아빠랑 나랑 추억의 볼링장>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남양주시,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맞아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남양주시는 국가 단위 할인축제 '코리아그랜드 페스티벌'기간 동안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5%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되는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기간 동안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시민 체감 혜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간 중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기존 10% 인센티브에 더해 5%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제공받을 수 있다.

남양주시는 국비 지원이 축소된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연중 10%로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760억 원이며, 이 중 인센티브 예산은 276억 원이다. 이번 추가 인센티브 제공은 침체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남양주시는 이번 혜택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남양주시가족센터

2025년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

남양주시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가족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다문화가족에게 지원하기 위해 통번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

통역, 번역, 정보제공

이용방법

내방, 전화, 이메일, 팩스, 출장 등

지원대상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지원내용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 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원

연락처

베트남어: 031-553-8211
중국어: 031-556-8212
몽골어: 031-556-8211

문의사항

031-553-8211 | nyj8211@hanmail.net

센터주소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6번길 95

베트남어

중국어

몽골어

기타언어에 대한 지원은 인근 센터와 연계하여 지원

가족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NAMYANGJU FAMILY CENTER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교실

어휘, 발음, 읽기, 또래와의 상호작용 우리아이 잘 하고 있는 걸까?
자녀 언어발달 관련 고민, 지금 바로 해결해보세요!

신청기간

연중(1월~12월)
- 사전예약 및 회원가입 필수
- 서비스 순차적 진행

신청대상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교 재학중)
- 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언어치료 바우처 이용자는 중복지원 불가
(단, 언어평가는 진행 가능)

신청 및 문의

031-555-8261 (가족생활팀, 언어발달지도사)

서비스 내용

언어평가

- 표준화된 검사도구 활용 언어발달수준 평가
- 결과를 토대로 언어교육 대상자 선정

언어교육

- 전반적인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어휘, 구문, 읽기, 의사소통 능력 등)
- 주 2회, 회당 40분 센터 교육
(주 1회 40분 또는 주 1회 80분 탄력 운영 가능)
- 개별수업(1:1), 모둠수업(2인 이상)

가족센터 남양주시가족센터
NAMYANGJU FAMILY CENTER

Базовые правила для работы в Корее 외국인을 위한 노동법규 안내



Информацию ниже вы може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как чек-лист для проверки: соблюдаются ли ваши базовые трудовые права?

1) Рабочий контракт(근로계약서)

- Трудовой договор необходим для защиты прав как работника, так и работодателя, поскольку он чётко определяет основные условия труда —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рабочее время и другие.
- Если работодатель заключает трудовой договор в письменной форме, но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его работнику, ему может быть назначен штраф в размере до 5 миллионов вон.
- В трудовом договоре должны быть чётко указаны условия: за работная плата, рабочее время, выходные дни, ежегодный отпуск и оплачиваемый отпуск.
- Вы может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стандартной формой трудового договора,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труда и занято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 Минималь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 2025 году составляет 10 030 вон в час.

2) Еженедельный оплачиваемый выходной(주휴수당)

- Вы имеете право на один еженедельный оплачиваемый выходной, если:
- В течение 4 недель среднее установленное рабочее время с

- оставляет 15 часов или более в неделю;
- Работник не пропускал работу без уважительной причины (т.е. имел полную посещаемость).
- Даже если работник фактически не отработал все часы, при полной посещаемости работодатель обязан выплатить надбавку за еженедельный оплачиваемый выходной.
- Учитывается установленное рабочее время (소정근로시간), а не фактически отработанное.
- Если установленное время — 15 часов и более в неделю, и при этом не было опозданий или преждевременных уходов, то надбавка за еженедельный выходной должна быть выплачена.
- ### 3) Оплата за сверхурочную работу(연장근로 수당)
- Сверхурочное рабочее время — это время, отработанное сверх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графика.
 - За сверхурочную работу необходимо выплачивать доплату в размере 50% от базов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통상임금).
 - Сверхурочные, ночные и праздничные часы работы не могут превышать 12 часов в неделю.
 - Работа между 22:00 и 06:00 считается ночной, и за неё выплачивается доплата 50% от обыч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 За работу в выходные и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 До 8 часов — дополнительно 50% от обычной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 Свыше 8 часов — дополнительно 100% (сверхурочная работа в выходной день).
- ※ Исключение: предприятия с численностью менее 5 работников.
- ### 4) Пособие за простой(휴업수당)
- Если вы не можете работать по

- о вине работодателя, вам положено:
- Пособие за простой = 70% среднего заработка.
- ### 5) Оплачиваемый ежегодный отпуск(연차휴가)
- Оплачиваемый ежегодный отпуск — это дни отдыха,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ботнику при выполнении определённых условий (например, явка 80% и более). Даже не выходя на работу в дни отпуска, вы сохраняете заработок.
- Условия получения:
- Среднее установленное рабочее время — не менее 15 часов в неделю (за 4-недельный период);
 - Организация насчитывает 5 и более работников.
- До 1 года стажа (первый год работы):
- При полной явке за месяц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1 оплачиваемый день отпуска.
- После 1 года стажа:
- При явке 80% и боле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ежегодный отпуск — от 15 до 25 дней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стажа.
- 직장에서 당신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 1)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했음에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유급휴가 등의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 ### 2) 주휴수당 (유급 주휴일)
-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1주에 1회 유급 주휴일이 주어집니다.
-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 · 무단결근 없이 개근할 것
- 모든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결근이 없으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지각이나 조퇴가 없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 3) 연장근로 수당
- 연장근로는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을 말합니다.
 -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은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2:00~06:00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간주되며,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공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추가 지급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추가 지급 (휴일 연장근로)
- ※ 단,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입니다.
- ### 4) 휴업수당
-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 ### 5) 유급 연차휴가 (연차휴가)
- 유급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입니다.
- 연차휴가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 조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임사 1년 미만: · 한 달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임사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연 15~25일의 유급 연차휴가 부여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 임박토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www.police.go.kr

แนวทาง

การป้องกั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경찰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เราให้บริการช่วยเหลือและหลักสูตรการศึกษาประเภทต่างๆ เช่น การศึกษาเพื่อป้องกั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และการฝึกอบรมในข้อชี้
 - เพื่อสนับสนุนการปรับตัวและการตั้งถิ่นฐานของแรงงาน/นักเรียนต่างชาติ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ให้เรารุ่งเรืองการตั้งต่อไป
 - เราให้บริการ "เซ็นเรียนป้องกั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ที่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ครอบครัววักก้าวัฒนธรรม, 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 และองค์กร NGO เพื่อให้อุปกรณ์อย่างละเอียดเกี่ยวกับ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นักเรียนต้องพบปะกันมากมายเฉพาะ (เช่น ผู้ก่อการร้าย, ฆาตกรรม, ฆาตกรรม, ฆาตกรรม, ฆาตกรรม) รวมถึงวิธีหลีกเลี่ยงป้องกัน
 - เราให้บริการ "โรงเรียนสอนขับรถ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 โดยไม่มีค่าใช้จ่ายเพื่อสนับสนุ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มีความต้องการใบขับขี่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มีหนังสือเรียนใน 3 ภาษา)
- ★ การสอบถามเกี่ยวกับใบขับขี่และการสอบใบขับขี่
 - สำนักงานสอบใบขับขี่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ราชการ: 1577-1120 (www.safedriving.or.kr)
 - การทดสอบและการสอบ : ขอสมัครใน 3 ภาษา (ภาษาอังกฤษ, ภาษาจีน, ภาษาเวียดนาม)
- ※ คุณมาหาเราด้วยตัวเองเพื่อป้องกั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หลักสูตร) และเซ็นเรียนในข้อชี้ (หลักสูตร) ด้วยการติดต่อทางต่างประเทศของสำนักงานทั่วโลกที่สุด
- สำหรับ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คุ้นเคยกับภาษาเกาหลี เราให้บริการสำหรับนักเรียนและงานจ้างความ

ล้าม	รายละเอียด
สายด่วนการทอ เกี่ยวเกาหลี (1330)	•แผนกที่รับผิดชอบ: องค์การการทอเกี่ยวเกาหลี •เวลาเปิดทำการ: มีการโทร 3 ทาง / อังกฤษ-จีน-ญี่ปุ่น: เปิดตลอดทั้งวัน / อีก 5 ภาษา 08:00-19:00 (ตลอดทั้งปี) •ภาษา: ภาษาอังกฤษ, จีน, ญี่ปุ่น, รัสเซีย, เวียดนาม, ไทย, มาเลย์ (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อินโดนีเซีย (8 ภาษา)
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 ทาคูบี (1577-1366)	•แผนกที่รับผิดชอบ: 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เท่าเทียมทางเพศ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 •เวลาเปิดทำการ: มีการโทร 3 ทาง / อังกฤษ-จีน-เวียดนาม: พิธีป็นัส: เปิดตลอดทั้งวัน / อีก 9 ภาษา 08:00-21:00 (ตลอดทั้งปี) •ภาษา: ภาษาอังกฤษ, จีน, ญี่ปุ่น, รัสเซีย, เวียดนาม, ไทย, มองโกเลีย, พิธีป็นัส, กัมพูชา, อุซเบก, ลาว, เนปาล (12 ภาษา)
ศูนย์ช่วยเหลือ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ศูนย์ติดต่อคนเข้า เมือง) (1345)	•แผนกที่รับผิดชอบ: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ด้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เกาหลี •เวลาเปิดทำการ: มีการโทร 3 ทาง / อังกฤษ-จีน 09:00-22:00 / อีก 17 ภาษา 09:00-18:00 (เฉพาะวันธรรมดา) •ภาษา: อังกฤษ, จีน, ญี่ปุ่น, รัสเซีย, เวียดนาม, ไทย, อินโดนีเซีย, ไทย, มองโกเลีย, พิธีป็นัส, แคมโบเดีย, อารบิก, เนปาล, ฝรั่งเศส, สเปน, เบงกอล, สิงคโปร์, อูรดู, เยอรมัน (19 ภาษา)
BBB เกาหลี (1588-5644)	•แผนกที่รับผิดชอบ: องค์การไปรษณีย์หลวงเกาหลี (ส่วนตัว) •เวลาเปิดทำการ: มีการโทร 3 ทาง (แอป) / เปิดตลอดทั้งวัน (24/7) •ภาษา: ภาษาอังกฤษ, จีน, ญี่ปุ่น, รัสเซีย, เวียดนาม, ไทย, มาเลย์ (ภาษาเกาหลี), อินโดนีเซีย, มองโกเลีย, อารบิก, ฝรั่งเศส, สเปน, โปรตุเกส, สวีเดน, ไนแลนด์, อิตาลี, เยอรมัน, ตุรกี, อินเดีย, สวาฮิลี (20 ภาษา)

วิธีแจ้งอาชญากรรม

- หากคุณพบเห็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หรือตกเป็นเหยื่อของการกระทำผิด คุณสามารถขอ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จากตำรวจได้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ด้วยการแจ้งเหตุที่ **112**
 - เมื่อแจ้งความ โปรดบอกตำแหน่งปัจจุบันและสถานการณ์ (เมื่อใด/ที่ในอาชญากรรมเกิดขึ้น/โดยใคร) และระบุประเภทของเหตุการณ์ (ผู้ก่อเหตุ จำนวนคน ทิศทาง การเดินทาง ฯลฯ) อย่างชัดเจนกับเจ้าหน้าที่ตำรวจ
 - คุณสามารถแจ้งตัวจริงได้ผ่านทาง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 (สามารถโทรแบบฟรีไอดี), โทรศัพท์สาธารณะ (ตู้โทรศัพท์), โทรศัพท์บ้าน เมื่อใช้คุณสมบัติ 'การโทรฉุกเฉิน' (ปุ่มแดง +112) กับโทรศัพท์สาธารณะ คุณจะสามารถโทร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ผูกเบอร์บัญชี คุณสมบัติ 'การโทรฉุกเฉิน' สามารถใช้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ฉุกเฉินอื่นๆ ที่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อาชญากรรมได้
 - ※ เมื่อชาวต่างชาติแจ้งเหตุไปยัง 112 เขายังสามารถรับบริการการแปลภาษาได้ (เจ้าหน้าที่ตำรวจ – ล่าม – ผู้แจ้งเหตุ)
 - หากคุณตกอยู่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ที่การโทรศัพท์เป็นเรื่องยาก คุณสามารถแจ้งได้โดยใช้แอปพลิเคชัน '112 Emergency Call' หรือผ่านทางกรรการส่งข้อความ
 - ※ คุณสามารถดาวน์โหลดแอป '112 Emergency Call' ได้ที่ Google Play Store หรือ Apple Appstore
- โปรดคอยดูสถานที่เกิดเหตุไว้จนกว่าเจ้าหน้าที่ตำรวจจะมาถึงเพื่อเป็นหลักฐานประสานงานกับเจ้าหน้าที่เพื่อให้อำนาจหน้าที่ทำ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ที่เกิดเหตุ

ต้องการ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

จำหมายเลขเหล่านี้เอาไว้

การแจ้งเหตุและการโทรฉุกเฉิน	
การแจ้งเหตุอาชญากรรม (สำนักงานตำรวจแห่งชาติ)	112
ศูนย์แจ้งความฉุกเฉินในโรงเรียน (สำนักงานตำรวจแห่งชาติ)	117
เหตุฉุกเฉิน, ผู้ป่วยฉุกเฉิน, ผู้ป่วยฉุกเฉิน (สำนักงานป้องกันอัคคีภัยแห่งชาติ)	119
การเรียก, แลป, การละเมิดข้อมูลส่วนบุคคล (KISA)	118
การโทร/การปรึกษาฉุกเฉินสำหรับผู้หญิง (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เท่าเทียมทางเพศ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	1366
คอลเซ็นเตอร์ทราฟิ (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เท่าเทียมทางเพศ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	1577-1366
การร้องเรียนอื่นๆ	
ศูนย์ติดต่อคนข้ามใจ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1345
คอลเซ็นเซอร์รัฐบาลแห่งชาติ (กระทรวงมหาดไทยและ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	110
สายด่วน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ทางลี้ (องค์กรการท่องเที่ยวเกาหลี)	1330
การร้องเรียนและ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เกี่ยวกับการ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 (คณะกรรมการสิทธิมนุษยชนแห่งชาติ)	1331
คำแนะนำและ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ด้านกฎหมาย (บริษัทให้ความช่วยเหลือทางด้านกฎหมายแห่งชาติ)	131
หน่วยงานคุ้มครองเด็ก (กระทรวงสาธารณสุขและสวัสดิการ)	129
การให้คำปรึกษาทางโซเชียลสำหรับเยาวชน (กระทรวงความเท่าเทียมทางเพศ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	1388

[illegible]

ประเภทอาชญากรรมที่ทำให้ง่ายหากคุณไม่รู้ตัว

- การจัดตั้ง/การเข้าร่วมกลุ่มเพื่อก่ออาชญากรรม เช่น การทำร้ายร่างกาย, การข่มขู่, การบุกรุกบ้าน, การลักทรัพย์, 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ของทรัพย์สิน, การกักขัง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 การแบล็กเมล์ ฯลฯ จะได้รับโทษหนัก 
- คุณห้ามพกอาวุธหรือเครื่องมือที่ก่อให้เกิดอันตรายร้ายแรงกับชีวิตหรือร่างกายของผู้อื่นโดยไม่มีเหตุผลสมควร (เช่น มีด ท่อเหล็ก เลื่อยเหล็ก เป็นต้น) 
- คุณห้ามดื่มเมึ่กโดยไร้สติจริง การให้สถานที่สำหรับการเล่นก็ถือเป็นการเล่นที่ผิดกฎหมายเช่นกัน และคุณอาจได้รับโทษหนัก 
- แม้ว่าคุณจะหยิบวัตถุที่คุณเหมือนจะถูกทิ้งไว้ขึ้นมา (เช่น จักรยาน เป็นต้น) คุณอาจจะโดนลงโทษสำหรับการโจรกรรมหรือการขโมยสิ่งของที่สูญหาย 
- การผลิต, การลักลอบ, การครอบครอง และการจัดการยา/ยาเสพติดที่ผิดกฎหมาย จะได้รับโทษหนักและถูกส่งกลับประเทศ
 - ดำเนินการด้วยระมัดระวังในการปราบปรามในวงกว้างขึ้นกับ
 - ผู้ใช้เทคโนโลยีสารสนเทศดิจิทัล
 - ผู้ขายผลิตภัณฑ์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 ผู้ขายผลิตภัณฑ์ออนไลน์ (ดักแด้) และ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
-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อยู่มากกว่า 17 ปี จะต้องพกหนังสือเดินทาง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คนต่างชาติ ฯลฯ อยู่เสมอ หากฝ่าฝืนกฎหมายข้อนี้จะถูกปรับไม่เกิน 1 ล้านวอน หากคุณพยายามใช้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ของบุคคลอื่น หรือใช้ตัวตนที่เป็นเท็จโดยมีเจตนาหลอกลวงผู้อื่น คุณอาจโดนลงโทษจากการขัดขวางการปฏิบัติงานที่ทางราชการด้วย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 
- การกระทำต่างๆ เช่น การถ่ายที่ผิดกฎหมาย การส่งสื่อที่ล่วงละเมิดทางเพศ ฯลฯ จะทำให้ได้รับโทษหนัก
 - แม้ว่าจะไม่มีการสืบสืบทางกาย การกระทำดังต่อไปนี้จะทำให้ถูกลงโทษ:
 - 1 การส่งข้อความหรือรูปภาพที่อาจทำให้เกิดความอับอายทางเพศผ่านอินเทอร์เน็ต
 - 2 การถ่ายและแจกจ่ายรูปภาพของร่างกายของบุคคลอื่นโดยที่ไม่ได้รับความยินยอมจากบุคคลดังกล่าว
 - 3 การประมวลผล การซื้อ การจัดเก็บ หรือการดูวิดีโอหรือรูปภาพที่ถ่ายถ่ายมาผิดกฎหมาย

- กรณีดังต่อไปนี้จะได้รับโทษหนักจนกระทั่งขับขียานพาหนะ จักรยานยนต์ หรือ สกู๊ตเตอร์ไฟฟ้า
 - > การขับรถยนต์ จักรยานยนต์ หรือสกู๊ตเตอร์ไฟฟ้าโดยไม่มีใบขับขี่จะทำให้ได้รับโทษ
 - > การมาแล้วขับจะทำให้ได้รับโทษหนัก
 - > คุณจะได้รับโทษหากคุณขับรถที่ยังไม่ได้โอนกรรมสิทธิ์ทางกฎหมาย
- คุณจะได้รับบทลงโทษหรือโดนค่าปรับเมื่อทำสิ่งในเรื่องพื้นฐาน
 - > ห้ามโยนกันบูทหรือ หมากฝรั่ง ชยะ ฯลฯ
 - > คุณไม่ควรเมาในสายในที่สาธารณะ หรือสูบบุหรี่ในที่ปลอดบุหรี่
 - > คุณต้องสวมใส่หมวกกันน็อคเสมอขณะที่ขับมอเตอร์ไซด์หรือสกู๊ตเตอร์ไฟฟ้า/ คิกบอร์ด
 - > สกู๊ตเตอร์ไฟฟ้าถูกจำกัดให้มีผู้ขับได้แค่คนเดียวเท่านั้น
 - > เมื่อข้ามถนน ตรวจสอบให้แน่ใจว่าข้ามผ่านสะพานลอย (สะพานคนเดิน) หรือทางม้าลาย (เมื่อไฟเป็นสีเขียว)



남양주시청 031-590-2114 남양주시가족센터 031-590-8214~5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031-563-519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구리남양주지부 1644-7077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031-558-1366 남양주교육복지플러스센터 031-560-1919 범죄신고 112 남양주경찰서 18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이주배경 자녀, 지역이 키우는 포용의 장 남양주시에서 열린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20주년, 이주배경 자녀의 지역 차원의 돌봄·사회통합 논의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영)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센터 실내체육관 특설 포럼장에서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 포럼’을 개최했다.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한 이번 포럼은 이주배경 아동의 성장 환경을 조명하고, 지역 차원의 돌봄 및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 센터장은 인사말에서 “이주민의 자녀 역시 우리 공동체의 일부다. 이번 포럼이 아이들이 지역의 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이주배경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힘찬 지원을 보내달라”고 강조했다. 박윤옥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고민하고 제도와 정책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민사회 지원의 핵심은 이주배경 자녀의 지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번에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된 만큼 본격적인 지원 노력을 하고자 한다. 오늘 포럼에서 나오는 말씀을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은 이경숙 경기도문화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는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이 나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지역사회 돌봄과 사회통합 방안’을 주제로 체류자격과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신수자 천마초등학교 학교사회복지사도 학교 현장의 돌봄 경험을, 김연정 남양주시가족센터 팀장이 지역기관의 협력 사례를, 정세리 이주배경 청년이 당사자의 이야기를, 장동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사무국장이 ‘날개 프로젝트’의 성과와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이날 포럼을 통해 남양주시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공동체 통합을 통한 함께 만드는 포용사회와 돌봄의 확장을 모색했다. 또한 남양

주시는 기관 간 협력 기반을 다지고, 향후에도 포용적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남양시외국인복지센터는 2007년부터 미등록아동을 위한 ‘무지개교실’을 운영하며 언어·진로·정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청소년의 자립과 시민 성장을 돕는 ‘날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진로탐색과 정서 회복을 결합한 청소년 맞춤형 지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행사는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아동·청소년이음돌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JB우리캐피탈이 후원했다. 송하성 기자



남양주시, 2026년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시행 앞두고 11월부터 계도 단속 및 홍보

남양주시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 견인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계도·단속과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도심 내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시민과 공유킥보드 대여사업자 모두에게 제도의 취지와 절차를 충분히 알려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계도 중심의 사전 단

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민원이 잦은 주요 상업지역, 고등학교 및 지하철역 인근 등 전동킥보드 집중 방치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에는 계도장을 부착해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정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남양주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점자 보도블럭 위, 자전거도로 등 보행안전과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주차금지구역 17곳을 지정했으며, 2026년부터 해당 구역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하거나 방치할 경우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계도기간 동안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와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주요 도심지역과 역세권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대형전광판, 시 홈페이지, 내손에 남양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전동킥보드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방치와 불법주차로 인한 불편과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남양주가 ‘보행이 안전한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계도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라며 “2026년 견인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전동킥보드 이용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관내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전동킥보드 이용에 유의해야겠다. 이지은 기자

김영의 기자

광주사랑카드 5%
캐시백 이벤트 실시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지역화폐 이용 촉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광주사랑카드 5% 캐시백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소비 촉진 축제이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에 맞춰 국비 1억 7천만 원을 확보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벤트 기간 동안 광주사랑카드 사용자는 충전금으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광
주사랑카드 이용 활성화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의 기자

광주시
GWANGJU CITY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카페, 다이음

모두多함께 프로젝트

자연을 담은 수공예

라탄 접시 만들기

약 23cm

처음이어도 괜찮아요! 손재주 없어도 OK!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예쁜 접시를 직접 만들어보세요-

* 일정이 변경되었어요~!

11. 11.(화) 오전 11시

모두家어울림 1층 카페,다이음

(경기도 광주시 경안로57번길 11)

모집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신청기간 2025. 10. 28.(화) ~ 11. 3.(월)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마감됩니다.

참여비용 지역주민이라면 **무료**

신청방법 광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 [프로그램 신청]

※ 카페 운영시간 : 화,수,목 10시30분~13시30분

※ 센터 운영시간 : 평일 9시~18시

문의 및 신청 070-4706-3626 가족친화팀

가족
센터

광 주 시 가 족 센 터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이용 안내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란?

광주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1대1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신규등록 지원	서포터즈가 센터 회원가입 안내	도움을 필요한 날짜의 최소 2일 전까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담당자가 서포터즈에게 1대1로 연계해 드립니다. 지원언어 ● 베트남어, 중국어, 러시아어, 필리핀어, 영어, 스페인어 ● 해당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서포터즈 활동 이용 가능 문의처 070-4706-3733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담당자
프로그램 이용 연계	서포터즈가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안내 및 연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 서포터즈가 함께 동행하여 통역 서비스 지원 (병원, 우체국, 은행 등) -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상담을 서포터즈가 함께 동행하여 통역 지원 - 어린이집, 학교 전화 상담 시 서포터즈가 함께 통화하여 통역 지원	



광 주 시 가 족 센 터

경기도 '결혼지원사업 2025' 2차 모집...신혼부부 1540쌍 100만원 지원

Кёнгидо объявляет второй этап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ожёнов 2025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объявляет в торой этап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и молодожёнов: помощь в 1 млн вон получают 1540 пар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открывает в торой этап набора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Поддержка на свадьбу среди молодёжи 2025», который продлится с 27 октября по 7 ноября.

Цель программы — снизи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е бремя молодых супругов и обеспечи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их быта.

Каждой паре выделяется 1 млн вон. В августе на первый этап программы было отобрано 2650 пар, однако власти Кёнгидо совместно с провинциальным парламентом выдел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чтобы молодожёны, которые поженятся с сентября по декабрь, также могл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второй этап предусмотрена поддержка 1540 пар, а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участников программы в 2025 году составит 4190 пар.

Право на участие имеют пары, в которых оба супруга:

-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в Кёнгидо;
- родились в период с 1 января 1985 г. по 31 декабря 2006 г.;
-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брак с 30 августа 2025 года до даты подачи заявки или планируют сделать это до 31 декабря 2025 года;
- совместный доход пары за 2024 год не превышает 80 млн вон.

Отметим, что программа открыта и для 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заключивших брак с иностранным супругом.

Финальный отбор участников будет проведён с учётом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и проживания в Кёнгидо за последние пять лет и уровня совместного дохода пары.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денежная поддержка будет выплачена в декабре.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на сайте «Gyeonggi Minwon 24»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колл-центр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Ким Сонх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отдела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молодёжи Кёнгидо, отметил: «Результаты первого этапа показали высокий интерес молодожёнов, поэтому мы решили провести второй этап. Мы продолжим разрабатывать разнообразн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для молодых

경기도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진행한다.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지원 모집을 완료했으나 9월부터 12월 사이 결혼하는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회와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2차 모집하기로 했다. 올해 결혼지원사업의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 결과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2차 모집을 결정했다"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살다예바 예카테리나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 신청하는 방법

วิธีการยื่นขอประกันการ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และประกันค่าเดินทางของแรงงานE9 외국인 근로자 정보

E9 근로자는 한국에 입국하면 꼭 전용보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국하기 전에 보험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แรงงาน E9 ที่เดินทางเข้ามาทำงาน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ได้ จำเป็นต้องสมัครประกันเฉพาะสำหรับแรงงาน E9 ดังนั้นก่อน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จะทำการ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อย่างไร ต้องทำอย่างไร มีวิธีการอย่างไร จะแจ้งให้ทราบค่ะ

E9 근로자는 출국만기보험금과 귀국비용보험금을 받기 위해 출국 1개월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출국 예정 신고를 하고, 출국 최소 7일 전까지 삼성화재에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แรงงาน E9 ก่อนจะ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ประมาณ 1เดือน ต้องทำการแจ้ง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ที่สำนักบริการพัฒนาบุคลากรแห่งเกาหลี และก่อน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อย่างน้อย 7วัน ต้องทำการยื่น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จากบริษัทประกันซัมซุง

필수 서류 1. 보험금 신청서/동의서 2. 본인 통장 사본 3. 본인 확인 서류(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4. 출국예정사실확인서 5. 비행기표

신청은 삼성화재 전용 상담센터, 모바일 앱, 또는

위임된 협력 은행(우리, 신한)을 통해 가능합니다.

เอกสารที่จำเป็น 1. แบบฟอร์มการสมัคร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หนังสือยินยอม 2. สำเนาสมุดบัญชีธนาคาร 3. เอกสารยืนยันตัวตน(สำเนาพาสปอร์ต หรือ สำเนาบัตรประจำตัวต่างชาติ 4. เอกสารยืนยันการแจ้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 5. ตัวเครื่องบิน

วิธีการยื่นสามารถยื่นผ่านบริษัทประกันซัมซุง, แอปโทรศัพท์มือถือ, หรือมอบอำนาจยื่นผ่านธนาคารที่เข้าร่วม(ถ้ามี, ขึ้นัน)

지급 받는 방법 : 1. 공항에서 현금으로 2. 본국 은행 또는 국내 은행에서 계좌이체로

วิธี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 : 1. รับเงินสดที่สนามบิน 2. โอนเข้าบัญชีธนาคารในประเทศ หรือ ธนาคารที่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

신청하는 방법 : <근로자용 모바일 앱 출시> Google Play, App store에서 EPS Insurance를 검색하세요! 16개국 언어로 전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방법 안내: <https://www.youtube.com/user/HRDKorea> 에서 국가별 자막의 가입, 사용방법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는 www.youtube.com에서

EPS Insurance를 검색하세요)

보험사업자 연락처 : 삼성화재 콜센터 ARS1600-0266(국내) / 82-2-2261-8400(국외) / www.samsungfire.com

팩스: (가입) 0505-161-1420 (지급) 0505-161-1421 (기타) 0505-161-1422

วิธีการสมัคร : <แอปทางโทรศัพท์>

เข้าไปที่ Google Play, App store ค้นหาแอป EPS

Insurance ในแอปมีถึง16ภาษาที่ให้บริการ

คำอธิบายวิธีการใช้งาน: สามารถเข้าไปดูวิธีการใช้งานได้ตามลิงก์ที่แนบมา <https://www.youtube.com/user/HRDKorea> (หรือทำการพิมพ์ค้นหา EPS Insurance ในเว็บไซต์ www.youtube.com)

ช่องทางการติดต่อ : 삼성화재 콜센터 ☎ ARS1600-0266(ภายในประเทศ) / 82-2-2261-8400(ต่างประเทศ) / เว็บไซต์ www.samsungfire.com

แฟกซ์: (สมัคร) 0505-161-1420 (รับเงินประกัน) 0505-161-1421 (อื่น ๆ) 0505-161-1422

홍해원 기자
경기외국인SNS기자단



나들이로 부모와 자녀 유대감 키워요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관계향상 프로그램 진행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10월 26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인 '다문화가족의 진한 하루2(이하 다.가.진. 하루2)'를 진행했다.

이번 '다.가.진. 하루2'는 '다.가.진. 하루1'(부모교육 및 자녀 문화체험)에 이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야외 활동을 통해 가족 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활동에는 다문화가족 14가족, 총 40명이 참여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며 서울랜드의 놀이기구와 전시, 가족 뮤지컬 '애니멀 킹덤'을 함께 즐겼다. 서울랜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놀이시설과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에 적합한 장소로 선정됐다. 참가 가족들은 놀이기구와 전시관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뮤지컬 '애니멀 킹덤'을 관람하며 특별한 추억을 남겼다. 현장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했고 부모들은 "아이의 웃음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행복을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광주시 곤지암 소머리국밥 거리 축제

광주시는 '곤지암 소머리국밥 거리 축제'를 오는 11월 2일 곤지암 일원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곤지암 소머리국밥 거리 축제'는 북고 댄스 가수 '북고아재', 그리고 광주시 홍보대사 마커스강의 흥겨운 무대가 분위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다. 개회식은 손범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문화 행사는 개그맨 임혁필의 진행으로 ▲

만선초 관현악단 공연 ▲곤지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무대 ▲지역 가수 숙엔빈 자매의 축하공연 ▲경기아트센터 '봄 비트 브라스 밴드'의 관객 참여형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곤지암 소머리국밥 포토존 ▲리버마켓 ▲민속 5일장 등 풍성한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다문화가족도 참여해 보자. 송하성 기자

광주시, 느린 학습자와 가족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는 느린 학습자 초·중등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느린 학습자 학생들의 기초 학습과 놀이 활동을 결합해 문해력·의사소통 능력·자기표현력을 높이고 자신감 및 사회성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부모 교육 과정을 통해 자녀 이해를 돕고 부모들에게 정서적 휴식과 자조의 기회를 제공한다.

느린 학습자(경계선지능인)는 지능지수(IQ) 71~84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학습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말한다.

다문화가족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주변의 자녀들이 학습이 느리거나 말이 느린 특성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프로그램은 11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운영되며 총 10개 분야로 구성됐다.

수강생 모집은 10월 20일 오전 9시부터 광주시 평생학습포털 '어흥'(<https://gjedu.gseek.kr/user/course/offline/list>)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느린 학습자 초·중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창의 수학 & 보드게임 ▲영어야 놀자 ▲게임하며 배우는 우리 역사 ▲연극놀이 ▲건강한 친환경 홈베이킹 ▲공예 ▲글놀이·글쓰기 여행 ▲미술여행 등이며 부모 대상 프로그램은 ▲그림 속에 담긴 우리 아이 이야기 ▲소중한 나와 마주하는 플라워 치유타임 등이 운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느린 학습자 및 가족 대상 평생교육은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가족관계 회복, 지역사회 포용문화 확산 등 다층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누리집 및 광주시 평생학습포털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평생교육과(031-760-482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전문상담원과 함께 하는

맞춤형 가족상담



- 누구 : 심리상담이 필요한 광주시민 누구나
(일상 스트레스, 의사소통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부부 및 가족 갈등 등)
- 언제 : 월요일~목요일(09:00~18:00)
매주 목요일 야간상담 운영(18:00~21:00)
- 비용 : 1회당 10,000원
- 문의 : (031) 798-7138

'님'이 필요한 지금, 고민을 나누세요~
광주시가족센터가 함께 합니다.

 광주시가족센터

 The Council for Immigrants in Gwangju

7th **희망도시 행복광주**

이주민 한마음 체육대회

2025

November 02

14:00-18:00

광주시 문화스포츠 센터
3층 다목적 체육관

후원  광주시 GWANGJU CITY

협찬  민앙베이커리 Cake & Bakery  PLANIT products

주최/주관 **광주외국인주민지원단체협의회**




미술심리 & 색채심리! '미술로 마음 잇다.'

희망충전소

- 내용: 색채심리 집단프로그램
- 일시: 2025년 11월 08일~11월 29일(4회기)
매주 토요일 10:00 ~11:30
- 대상: 관내 한부모가족 부모-자녀(선착순 6가정)
- 신청기간: 2025.10.17~11.07
- 신청방법: 센터홈페이지(gggj.familynet.or.kr)->회원가입
->프로그램 안내->프로그램 홍보->희망충전소 신청
- 장소: 광주시가족센터 2층 교육장
- 관련 문의: 031-798-7138(가족성장팀 가족상담 담당자)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이해 넓히고 사계절 음식 문화 경험해요

양평군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제철 농산물로 즐기는 요리체험’ 프로그램 진행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9월 16일과 10월 10일, 양일에 걸쳐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지역의 친환경 제철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양평친환경로컬푸드의 지원을 받아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식생활 형성을 위한 실질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리체험은 참가자의 한국어 숙련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기초 요리과정을 진행했다. 10월에는 중급 수준의 수강생을 위한 심화 체험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요리체험을 통해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생활에 유용한 식습관 지식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다.

이날 프로그램은 양평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손질하고 조리하면서, 단순한 요리 실습을 넘어 지역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민의 노고를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계절의 맛이 살아있는 제철 식재료를 통해 한국의 사계절 음식 문화를 경험하며, 실생활에 유용한 건강한 식습관도 함께 배웠다.

양평친환경로컬푸드지원센터 관계자는“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내·외국인 간의 문화적 교류와 이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우영 센터장은 “이번 체험은 결혼이민자들에게 단순한 요리 수업을 넘어, 한국어를 배우고 지역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양평군의 주민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영의 기자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양평군가족센터, 1인가구 여가지원사업 ‘Solo&Joy’ 운영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는 12월까지 양평군 관내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1인가구 여가지원사업·솔로앤조이(Solo & Joy)’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0월 21일 중장년 1인가구 대상 ‘나만의 향수 만들기’ 체험을 시작으로, 10월 22일 통합 1인가구 대상 ‘웰니스 테라피’, 10월 24일 노년 1인가구 대상 ‘행복한 노년, 취미가 있는 하루’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

다. ‘솔로앤조이(Solo & Joy)’는 1인가구의 정서적 고립감 완화, 자존감 회복,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목표로 하는 양평군가족센터의 대표 여가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증가하는 중장년·노년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중장년 1인가구 대상 ‘힐링타임, 취향한 스폰’ ▲노년 1인가구 대상 ‘행복한 노년, 취미가 있는 하루’ ▲통합 1인가구 대상 ‘나를 위한 자유, 함께하는 여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도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감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된다. 박우영 센터장은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대에 혼자 사는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지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솔로앤조이’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에게 삶의 활력과 정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대 상	외국인,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 지원되지 않는 언어는 타 센터 연계 가능
서비스시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전화, 또는 센터 방문 등 전화 : 031-775-5950
서비스내용	상담 및 기타 정보제공 공공기관 이용 시 통·번역 서비스 임신, 출산, 양육 관련 통번역 서비스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일상을 함께하는 양평 길라잡이
양평군 가족센터



다문화 아동의 성장, 무대에 올리다

하남시가족센터, '다가치 꿈나무 페스티벌' 개최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10월 20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다문화가정 아동과 가족이 함께한 '다가치 꿈나무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중언어 수료식(중국어 A.B반, 일본어 반, 베트남어반)과 다문화공유학교 오케스트라 발표회로 구성돼 7개월간의 배움과 노력을 무대 위에서 빛낸 뜻깊은 시간이었다. 올해 3월부터 약 7개월간 진행된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과 다문화공유학교 프로그램의 결실을 나누는 자리로, 아이들의 성장과 성실한 노력을 함께 지켜봐 온 학부모와 지도교사들이 함께 참여했다.

페스티벌의 오프닝은 다문화공유학교에 참여한 윤 모 아동의 "Golden" 공연으로 시작됐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중국어 동요를 부르며 귀엽고 사랑스러운 무대를 선보였고, 초등학생 아동들은 수화와 함께 중국어 노래를 불러 감동을 더 했다. 일본어 교실 어린이들은 일본 전통놀이 '켄다마(けん玉)' 공연을 통해 그간의 연습 성과를 선보였으며, 베트남어반은 '할

머니 사랑해요' 노래로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화공유학교 오케스트라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지원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발표회는 바이올린 독주, 플루트 2중주, 바이올린 2중주, 그리고 8명의 바이올린 합주 무대가 이어졌다.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악기를 배우고 악보를 익히며 연주에 임한 아이들의 노력은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센터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 2층에서는 아이들의 작품전시도 함께 진행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행사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이중언어 및 다문화공유학교 수료식에서는 참여 아동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수료증을 전달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다가치 꿈나무 페스티벌은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축제"라며 "아이들이 언어와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보건소,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당부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바이러스나 세균이 인체에 전파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산과 들, 밭, 야생동물 서식지 등 풀이 무성한 지역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감염되며, 평균 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두통·근육통·오한·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진드기에 물린 부위에 검은 딱지가 생기는 것이 특징으로, 초기에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구토·설사·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인다. 2024년 기준 치명률은 18.0%에 달하고, 현재까지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어 예방이 최선의 대응책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최근 3년간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가 2022년 40건(전국 193건), 2023년 38건(전국 198건), 2024년 27건(전국 171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도내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남시보건소는 시민들에게 가을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야외활동 시 긴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며 ▲풀숲이나 잔디밭에서는 돛자리 없이 직접 앉지 말아야 한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모두 함께 즐거운 지역사랑 캠페인...가족친화문화 확산의 장 마련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남시 미사역 인근 문화의 거리에서 '2025 건강가정캠페인'과 '시장놀이 나눔마켓'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하남시 관내 9개 행정동, 24개 어린이집의 원아와 교직원, 지역주민 등 총 507명이 함께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하남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사업의 중심 기관으로써,



이번 행사를 통해 센터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잠재적 이용자를 발굴하는 데 힘썼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유관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해 유아·아동 대상 체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됐으며, 그중 '스티커 모자이크 판넬' 활동이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 아동들은 판넬 속 공룡 그림에 스티커를 붙이며

'공룡을 잡는' 재미를 느꼈다. 스티커가 모두 부착되면 하남시가족센터 이름이 완성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센터의 이름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밖에도 캠페인 현장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안내 ▲가족복지 서비스 리플렛 배포 ▲센터 카카오톡 채널 친구 맺기 이벤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이 진행됐다. 친구 맺기를 완료한 시민에게는 홍보물품을 제공하며 시민 참여를 더욱 유도했다. 홍보물품으로는 비눗방울과 캐릭터 키링을 준비하여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지역사랑캠페인은 지역 내 가족과 아동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가족복지 증진과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지역주민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기회, 함께!

하남시가족센터, ‘다문화체험한마당’...다문화 체험하며 문화 다양성 알아가요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10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다문화 인식개선과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다문화체험한마당’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 커뮤니티와 함께 플리마켓 형태로 운영됐다. 하남시가족센터는 ▲다문화인식개선 캠페인 ▲문화다양성 체험 프로그램 ▲모두가족봉사단의 플리마켓 및 페이스페인팅 부스 등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총 487명의 지역주민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79점을 기록했다.

문화다양성 체험 부스에서는 ▲다문화 의상체험 ▲

다문화 전통놀이 체험이 운영되었으며, 특히 의상체험 후에는 미사2동 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한 플라로이드 즉석 사진 촬영 서비스가 제공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체험활동을 마친 참가자들은 하남시가족센터 홍보 부스에서 만족도 조사와 다문화인식개선 패널 조사에도 참여했다. 인식개선 조사는 총 323명이 응답했으며,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316명(97.8%)에 달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아나바다 취지에 맞춰, 세제 없이 물로만 세척이 가능한 감 모양과 아보카도 모양의 뜨

개질 수세미를 홍보물품으로 제공했다. 또한,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고려해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낭만카드’를 함께 배포해 만족도를 높였다.

모두가족봉사단에서 운영한 플리마켓에서 얻게 된 수익금 전액은 지역사회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만들기 및 전달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다문화체험한마당은 단순한 즐길거리를 넘어서, 지역주민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다양한 가족과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문화적 포용력을 키울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하남에서 가족정책 소통의 장을 열다

하남시가족센터, ‘가족정책사업 관계자 워크숍’ 진행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10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 이벤트홀에서 ‘2025년 가족정책사업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도·시군 공무원,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포함) 및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경기도 가족정책 추진 현황 공유 ▲경기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시·군 가족정책 분야 우수사례 발표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주요 사업안내 ▲시·군-센터 간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가족정책사업 관계자 워크숍은 도와 시·군, 가족센터,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가족정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워크숍은 도·시·군 가족센터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의 필요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특히 가족정책 현장의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며, 정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운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경기도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을 세심히 살피고 누구나 가족 형태와 관계 없이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포용적 가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병용 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이 도와 시·군, 가족센터, 유관기관이 함께 가족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하남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중증화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해마다 변이를 일으키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 ‘LP8.1 백신(화이자·모더나)’을 활용해 진행되며, 고위험군 시민의 면역 형성을 돕고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장애인생활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시민 누구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 진행되며,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70~74세는 10월 20일부터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

또한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0월 15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연 1회 정기 접종의 형태로 시행되며, 무료 접종 대상자는 하남시 관내 88개 지정 의료기관을 포함해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접종 가능하다.

김영의 기자



성장과 나눔, 실천...가족 소통과 휴식의 시간
평택시가족센터, 가족이 함께하는 모두가족봉사단 워크숍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0월 18일 평택시 관내 글램핑장 포레스트 도일에서 '제13기 모두가족봉사단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정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가족 봉사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가족 간 소통과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가족이 함께하는 글램핑 및 도자

물레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가족 단위로 참여한 봉사단원들은 자연 속에서 글램핑을 즐기며 서로의 노력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유대감을 나누는 뜻깊은 하루를 보내면서 모두가족봉사단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참여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도자 물레체험(가족 컵 만들기)은 총 4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도자 기초 이론 설명, 물레를 이용한 컵 제작, 작품 꾸미기 순으로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직접 손으로 작품을 완성하며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 사춘기 자녀, 소통해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0월 25일 이중언어교육 수강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코칭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결혼이민자 학부모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사춘기 자녀의 교육을 주제로 마련되었으며, 중국, 베트남, 태국 출신 다문화가족 부모 27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은 학습지를 통해 참가자들이 '자녀와의 관계', '자녀와의 소통', '자녀와의 대화 내용 및 방법' 등을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으로 시작해 지도에 따라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 시뮬레이션 진행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아 이랑 소통하는 좋은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며 “이제 사춘기 자녀랑 잘 대화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의 기자

부모역할지원사업 [평택부모학교]

유아기부모교육

교육대상

다문화가족 5~7세 자녀 및 부모 5가족(총 10명)
* 센터 언어발달지원사업과 연계 진행 예정

일시 및 내용

11/29(토) 10:00~11:00 자녀 언어발달 관련 부모교육
11:00~12:00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그림책 놀이
12:00~13:00 가족 마카롱케이크 만들기 * 가족당 1개

신청기간

2025.10.24.(금) 10:00 ~ 모집 완료 시까지

교육장소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평택2로 125, 2층)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QR코드 참조)
: 홈페이지 로그인 → 프로그램 안내 → 신청
(회원인 아닐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

가족교육팀 031-615-3962

참여자 신청 QR

★ 취소기간 이후의 취소 및 교육 당일 무단 불참은 다른 신청 가족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반드시 취소기간 내 취소 및 사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부모역할지원사업 [평택부모학교]

양육스트레스해소체험

신청 바로가기

모집대상

올해 부모교육 참여자 중 양육스트레스 해소체험을 희망하는 부모 20명
[1순위] 우수 참여자 [2순위] 양육스트레스 해소 체험 신규 참여자

교육일시

2025.11.20.(목) 10:00~12:00

교육내용

리얼플라워캔들 만들기 * 2송이 완성

교육장소

평택시가족센터(평택시 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 1층)

신청기간

2025.10.17.(금) 14:00 ~ 모집 완료 시까지

신청방법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ptfc.familynet.or.kr>) 신청

문의

가족교육팀 031-615-3962

★ 부모교육 홍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모교육 우수 참여자에게 1순위 참여 혜택이 제공됩니다.(선착순 X)

★ 취소기간 이후 취소 및 교육 당일 무단 불참은 다른 신청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한하게 되어 향후 프로그램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취소기간 내 취소하거나, 사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Foreigners with excellent Korean language skills and a Korean studies major will have easier entry into Korea 법무부, 외국인 인재 확보 새로운 정책 발표

Going forward, foreigners with a Korean studies degree and a TOPIK level 6 proficiency will find it easier to enter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er Jeong Seong-ho) announced that three systems will be implemented starting October 29th in response to industry demands for promising local talent to participate in domestic internship programs to enhanc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expanding overseas.

First, ① students with the highest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OPIK Level 6) in a Korean studies major at an overseas university and ② graduates of universities ranked within the top 200 in the world will have their job-seeking and employment visa requirements relaxed or exempted, providing them with more freedom in domestic job-

seeking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This includes nine countries, including Vietnam, China, Thailand, Japan, India, Indonesia, Malaysia, Singapore, and the Philippines, which are ranked within the top 1,000 in the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These students will be exempt from the points system and financial requirements for the Job-Seeking (D-10-1) visa, and from the major and career requirements for the Special Activities (E-7) visa.

In addition, ③ foreigners who are 29 years of age or younger, have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in a science or engineering field from a university ranked within the top 1,000 of the QS rankings of the 9 countries mentioned above, and have Korean language skills equivalent to TOPIK Level 2 will be given extra points (20 points) when applying for a job-seeking (D-10-1) visa

and will be exempted from the work experience requirement when reviewing a specific activity (E-7) visa.

Second, we have established the "Corporate-Tailored Internship (K-Trainee) Program." This program allows ① undergraduate students (including master's and doctoral students) in their third year or higher, supported and trained by Korean companies advancing overseas through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 with local universities, and ② foreign talent hired by overseas subsidiaries to participate in internships at their domestic headquarters and develop their professional skills. This program targets the nine Asian countries mentioned above and will be piloted for two years before a decision is made on whether to expand the program. This program is not open to foreigners,

and Korean companies must apply to the immigration office or foreigner registration office in their jurisdiction.

Thir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lso improved the D-10 visa system to support employment and settlement for international students graduating from domestic universities. This system has expanded the existing two-year stay on the D-10 visa to three years, and has also expanded the internship period for job seekers to reflect the needs of the field.

Minister of Justice Jeong Seong-ho said, "We have listened to the voices from the field and established policies to provide various channels for talent acquisition and recruitment to help our companies cultivate and recruit promising talent they want..."〈중략〉

PapayaStory

Иностранцам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 специальностью, связанной с корееведением, станет проще въехать в Корею

Теперь иностранцам, изучавшим корееведение и владеющим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на уровне 6-го TOPIK, будет проще въехать в Корею.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министр Чон Сонхо) объявило, что в ответ на запросы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для усил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работающих за рубежом,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лекать перспективные местные кадры к стажировкам в Корею, с 29 октября вводятся три новых 制度.

Первое. ① Для выпускников зарубеж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по специальности «корееведение» с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TOPIK 6) и ② для выпускников университетов, входящих в топ-200 мирового рейтинга, упрощаются или отменяются требования для получения визы на поиск работы ил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чтобы предоставить им более свобод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боты в Корею.

В число таких стран входят Вьетнам, Китай, Таиланд, Япония, Индия, Индонезия, Малайзия, Сингапур и Филиппины — для граждан этих стран в программу включены также университеты технических специальностей, входящие в топ-1000 рейтинга QS.

Для этих категорий иностранцев при подаче на визу D-10-1 (поиск работы) отменяются система баллов и финансовые требования, а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визы E-7 (специальн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отменяются требования к специальности и опыту работы.

Кроме того,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младше 29 лет, имеющих степень бакалавра или выше по инженерным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в одном из университетов указанных девяти стран, входящих в топ-1000 QS, и владеющих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на уровне TOPIK 2, при подаче на визу D-10-1 добавляется 20 баллов, а при рассмотрении визы E-7 отменяются требования к опыту работы.

Второе. ① Для студентов (3 курс и выше, включая магистров и аспирантов) зарубежны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с которыми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работающие за рубежом, сотрудничают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 «индустрия-университет», а также ②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кадров, уже нанятых зарубежными филиалами 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водятся новый «Корпоративный стажировочный проект K-Trainee», позволяющий проходить стажировку в головном офисе компании в Корею и повышать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навыки.

Эта программа будет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в течение двух лет в пилотном режиме в девяти вышеупомянутых странах Азии, после чего будет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её расширении.

Иностранцы не смогут подавать заявк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 это должны делать 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через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управление по делам иммиграции и иностранцев по месту нахождения.

Третье.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также улучшило систему виз D-10 для поддержки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и адаптации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окончивших корейские университеты.

Срок пребывания по визе D-10 увеличен с 2 до 3 лет, а также продлён период стажировки, связанный с поиском работы, чтобы лучше учитывать реальные потребности рынка.

Министр юстиции Чон Сонхо заявил: «Мы внимательно прислушались к голосу отрасли и разработали политику,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готовить и нанять перспективные кадры, нужные нашим компаниям, а также возвраща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зарубежные филиалы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В дальнейшем мы продолжим разрабатывать мер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обеспечение разнообразных каналов привлечения талантов и поддержку их адаптации в Корею».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작품 전시 통해 성취감 높여요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 동아리모임 전시회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0월 28일~31일 북부복지타운 1층 로비에서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에어팝 동아리’와 ‘캘리그라피 동아리’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풍선아트 동아리의 섬세한 풍선조형 작품과 캘리그라피 동아리의 감성적인 문구 작품이 조화를 이루며, 결혼이민자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예술적 역량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어 꾸려진

두 동아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전시회 참여자들은 “작품을 통해 나의 문화를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뿌듯하다. 이런 경험이 한국생활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예술체험을 넘어 가족 간 유대감과 협력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11월에도 두 차례의 작품 제작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며,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와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스트레스 해소로 일상활력 UP

평택시가족센터, 기혼여성 ‘스트레스 씬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0월 13일과 10월 20일 2회에 걸쳐 평택시 관내 기혼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가사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인 ‘스트레스 씬표’를 진행했다.

평택복지재단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가사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 ‘스트레스 씬표’는 가사 스트레스가 높은 기혼 여성의 스트레스 경감 및 스트레스 해소법, 감정 환기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집단상담, 여가문화 프로그램, 정리수납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연계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1차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정리수납 프로그램 2회차’는 평택시 정리정돈 업체인 ‘언니찬스’와 연계해 집안

일에 대한 가사스트레스가 높은 이번 사업 대상자들에게 옷장 수납법, 정리 도구를 활용한 정돈법, 실생활에 필요한 정리 꿀팁에 대해 교육했다.

2차 프로그램은 ‘밑반찬 만들기’로 실제 가사의 주체인 대상자의 가사경감을 위해 ‘파리고추 멸치볶음’, ‘한입 떡갈비’를 만들어볼 수 있는 요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완성된 반찬은 참여자들 외에도 평택시가족센터 초기입국 결혼이민자들에게 나눔으로써 한국생활 적응을 돕는 동시에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한 대상자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만든 음식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나도 행복해지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가사스트레스 해소지원사업 ‘스트레스 씬표’는 앞으로 우수참여자 대상 정리수납 파견 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자녀 발달단계별 맞춤형 교육

평택시가족센터, 찾아가는 부모교육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2025년 부모역할지원사업 〈평택부모학교〉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16회기에 걸쳐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 16개 교육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자녀의 생애주기별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부모교육으로 구성되었다.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대상을 아우른 이번 교육에는

총 425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교육 주제는 ▲우리 아이 문제행동 이해와 훈육 ▲행복한 자녀로 성장시키는 긍정 훈육 ▲부모가 꼭 해야 할 자녀의 성교육 ▲부모를 위한 스트레스 이해와 마음챙김 ▲자녀는 사춘기, 부모는 갱년기 ▲아이의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학부모-교사 소통의 기술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권역별로 여러 교육기관에서 진행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일부 회기는 인근 어린이집 간 연합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11월에는 영유아기 부모교육과 양육스트레스 해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위인탐험대로 즐거운 역사 교육

평택 공동육아나눔터 1~4호점, 10회기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 공동육아나눔터1~4호점에서는 지난 8월 21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관내 거주 초등 1~2학년 아동 각 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움교실-도전! 위인탐험대’ 프로그램을 약 10회기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도전! 위인탐험대’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찾아가는 배움교실과 연계해 10명 위인의 재미있는 일화와 활동 중심 다양한 학습을 통해 인성덕목을 알아보고, 위인 붙임파지, 입체퍼즐, 게임 등 개별 교구를 제공하여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역사를 재미있게 익히며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김성영 센터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역사에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냅킨공예로 내외국인 소통해요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10월 23일과 24일 다문화·비다문화 주민 32명을 대상으로 ‘냅킨공예’ 커피박스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지원하는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소통 프로그램의 목적으로 30~50대 여성들이 냅킨공예를 매개로 서로 어울리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냅킨공예의 기본 원리와 진행 방법을 알아본 뒤, 아크릴 물감 채색 및 냅킨 붙이기, 마감재 바르기 등이 이뤄졌다.

한 참여자는 “다소 생소했지만, 막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니 재미가 있었다. 또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또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Hướng dẫn đăng ký

**Nhập hộ khẩu người nước ngoài
& Đăng ký người phụ thuộc
Bảo hiểm y tế quốc dân**

경기외국인

01

Đơn đăng ký

[Nhập hộ khẩu người nước ngoài]
Đơn khai báo người nước ngoài đang cư trú tại địa phương

[Người phụ thuộc]
Đơn khai báo đăng ký/hủy bỏ người phụ thuộc

 **Lưu ý về giấy tờ cần chuẩn bị:**

- Hiệu lực: 3 tháng kể từ ngày cấp (3 tháng với giấy tờ trong nước, 9 tháng với giấy tờ nước ngoài)
- Giấy tờ cần có đủ họ tên và ngày tháng năm sinh
- Với giấy tờ nước ngoài, cần có giấy tờ gốc và bản dịch tiếng Hàn, phải có Apostille hoặc xác nhận lãnh sự
- Trường hợp không phải tiếng Hàn, cần có công chứng của công ty luật hoặc giấy chứng nhận xác nhận bản dịch của văn phòng dịch thuật công chứng.

경기외국인

02

Giấy tờ chứng minh

① Trường hợp người đăng ký là người cư trú tại địa phương (Nhập hộ khẩu)

- Vợ/chồng:
(Giấy tờ Hàn Quốc)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hôn nhân (chỉ tiết)
(Giấy tờ Việt Nam)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hôn nhân
- Người thân trực hệ (cha mẹ, con cái):
(Giấy tờ Hàn Quốc)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 giấy khai sinh, giấy xác nhận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Giấy tờ Việt Nam)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

※ Nếu chủ hộ là người nước ngoài, chỉ có thể đăng ký cho vợ/chồng và con cái dưới 19 tuổi.



경기외국인

03

Giấy tờ chứng minh

② Trường hợp người đăng ký là người tham gia bảo hiểm lao động (Người phụ thuộc)

- Vợ/chồng:
(Giấy tờ Hàn Quốc)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hôn nhân (chỉ tiết)
(Giấy tờ Việt Nam)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hôn nhân
- Người thân trực hệ (cha mẹ, con cái):
(Giấy tờ Hàn Quốc)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 và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hôn nhân (chỉ tiết)
(Giấy tờ Việt Nam)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gia đình và giấy chứng nhận quan hệ hôn nhân

※ Các giấy tờ liên quan đến hôn nhân được cấp dưới tên người phụ thuộc.
※ Trường hợp nam giới từ 30 tuổi trở lên, nữ giới từ 28 tuổi trở lên, cần có giấy tờ xác nhận tình trạng hôn nhân.



경기외국인

04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từng khu vực

Nộp Đơn đăng ký & Giấy tờ chứng minh trực tiếp hoặc gửi tin nhắn fax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Ansan
(Ansan, Siheung, Gunpo, Uiwang, Gwacheon)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Incheon
(Incheon, Bucheon, Gwangmyeong, Gimpo)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Suwon
(Suwon, Yongin, Hwaseong, Osan, Pyeongtaek, Anseong, Icheon, Gwangju (Gyeonggi), Yeosu)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Uijeongbu
(Uijeongbu, Namyangju, Gapyeong, Pocheon, Dongducheon, Yeoncheon, Yangju, Guri, Paju, Goyang, Yangpyeong)

Bạn có thể chụp ảnh tài liệu bằng điện thoại di động và gửi qua tin nhắn fax. Chú ý là chỉ có thể đính kèm tối đa 4 trang trong một lần!
(Nếu có hơn 4 trang, vui lòng gửi nhiều lần)

경기외국인

05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Ansan



Ansan, Siheung, Gunpo, Uiwang, Gwacheon

- Địa chỉ: Tầng 4, 366 Hwara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 Tàu điện ngầm: Lối ra số 1 Ga Gojan (Tuyến 4)
- Tin nhắn fax: 1668-5197



경기외국인

06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Incheon



Incheon, Bucheon, Gimpo, Gwangmyeong

- Địa chỉ: Tầng 13, Woori M-Lion's Valley, 88 Bupyeongdae-ro, Bupyeong-gu, Incheon
- Tàu điện ngầm: Lối ra số 1 Ga Bupyeong Sijang (Tuyến 1 tàu điện ngầm Incheon)
- Tin nhắn fax: 1668-5210



경기외국인

07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Suwon



Suwon, Yongin, Hwaseong, Osan, Pyeongtaek, Anseong, Icheon, Gwangju (Gyeonggi), Yeosu

- Địa chỉ: Tầng 1, Tòa nhà Cheongwon, 119 Hyowon-ro, Paldal-gu, Suwon-si, Gyeonggi-do
- Tàu điện ngầm: Lối ra số 5 Ga Maegyo (Tuyến Bundang)
- Tin nhắn fax: 1668-5198



경기외국인

08

Trung tâm Dịch vụ Dân sự Người nước ngoài Uijeongbu



Uijeongbu, Namyangju, Gapyeong, Pocheon, Dongducheon, Yeoncheon, Yangju, Guri, Paju, Goyang, Yangpyeong

- Địa chỉ: Tầng 9, Central Tower, 80 Simin-ro, Uijeongbu-si, Gyeonggi-do
- Tàu điện ngầm: Lối ra số 2 Ga Uijeongbu (Tuyến 1)
- Tin nhắn/Fax: 1668-5931

경기외국인

한국문화 경험하고 힐링해요

평택시가족센터, 글로벌레인보우스쿨 야외수업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0월 22일 예산 수덕사와 예당호에서 ‘글로벌 레인보우 스쿨’ 야외수업을 했다.

이번 야외수업에는 ‘글로벌 레인보우 스쿨’ 후원단체인 고덕레인보우로타리클럽과 학습자 총 71명이 함께하며 서로 소통하고 사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여자들은 수덕사 관람을 통해 한국 전통 사찰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한정식을 맛보며 한국의 식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예산의 대표 관광지인 예당호를 방문해 출렁다리와 모노레일을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기회를 통

해서 후원처와 학습자들이 함께 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좋았다. 앞으로도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야외수업에 참여한 한 학습자는 “한국에 와서 처음 친구들과 멀리 놀러 왔는데 다양한 한국문화를 경험해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며 “한정식도 반찬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놀랐고 수덕사와 예당호의 예쁜 풍경을 보니 정말 힐링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글로벌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레인보우 스쿨’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이해 및 한국어 능력향상 지원을 위해 기초반, 스피치반, 토픽반 등을 운영함으로써 한국어 수준별 학습을 진행하고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026년 1월에 2학기 수업이 개강할 예정이다.

031-615-3958

김영의 기자

디지털 시대, 부모의 역할은?

평택시가족센터, 아버지 자조모임 집단상담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10월 20일과 22일 센터 강의실에서 영유아가 자녀를 둔 아버지 5명과 아동.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 5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아빠의 실험실(아버지 자조모임)’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집단상담은 ‘건강한 디지털로 향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아이들을 안전한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하기 위한 보호자 가이드’를 주제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부모의 역할과 역량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딥페이크와 사이버범죄 등 디지털 위험 사례와 관련 법적 규제를 이해하고, 자녀의 안전한

미디어 사용을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학습했다. 또한, 초.중.고생의 미디어 사용 실태와 인식, 요즘 아이들이 선호하는 ‘디지털 크리에이터’라는 직업군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세대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딸을 둔 아버지를 중심으로 성교육과 성범죄 예방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스마트폰 실습과 질문일기 작성 활동을 통해 가정에서도 실천 가능한 교육법을 배우는 개인적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모임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디지털 범죄와 성교육 접근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무거운 주제였지만 꼭 필요한 내용을 다루어 좋았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오는 11월 1일 아버지 자조모임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031-615-3906

김영의 기자

직업체험으로 미래직업 찾아요

평택시가족센터, 드론전문가 직업체험 실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는 지난 10월 18일 진로설계지원사업 ‘두드림(Do Dream)’ 프로그램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와 함께 직업체험 ‘드론전문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20명이 참여했으며, 드론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 배우고,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을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 과정에서는 촬영용, 소방용, 군사용 등 다양한 드론의 기능과 특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드론이 실제 사

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드론 조작 실습으로 직접 드론을 조종해보는 경험을 해봄으로써 장애물 통과하기 등 조작법을 익히며 드론 기술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드론전문가라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넓혔다.

참여자들은 “드론의 다양한 용도와 조종 방식이 흥미로웠다”라며 “드론을 직접 비행해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4차 산업과 관련된 미래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진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이모티콘 디자이너’ 직업 탐색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모티콘 디자이너의 역할과 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이모티콘 캐릭터를 기획해보는 실습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기본형과 다양한 감정표현이 담긴 이모티콘을 제작한 뒤, 미니 쿠션에 캐릭터를 그려 넣고 패브릭 마카로 컬러링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참여자들은 “이모티콘에 대해 많이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나만의 이모티콘 굿즈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김영의 기자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10월 25일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진로설계지원사업 ‘두드림(Do Dream)’의 일환으로 직업체험 ‘이모티콘 디자이너’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 19명이 참여하여 ‘이모티콘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대해 배우고, 관련된 다양한 직업군과 직업적 가치, 전망 등에 대해 알아

감정향수 만들며 친밀감 키워요



평택시가족센터는 지난 10월 18일과 25일 평택시가족센터 서부본소 다목적실에서 작전사령부(공군)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활동 매개 가족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로마테라피를 매개로 한 1회기 프로

그램은 가족 구성원이 감정향수를 만들고 각종 아로마향을 조향하며 마사지, 시향을 통해 가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2회기인 푸드 테라피 프로그램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나의 지금 감정 상태를 음식으로 표현해보며 가족 간 친밀감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영 센터장은 “평택시가족센터는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그 가족이 노고의 희생에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센터도 군인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용인에서 다양한 세대와 가족이 함께 ‘화합의 장’ 만들어요”

용인시가족센터, ‘2025 모든가족 가을축제’...아빠와 함께 걷기대회·가족 체험 등 진행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은 지난 9월 25일 구갈레스피아 일대에서 ‘2025 모든가족 가을축제’를 개최했다.

용인시민과 다문화가족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세대와 가족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펼쳐졌다.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동백호수공원 또는 센터 앞 광장 등에서 진행됐으나 올해는 더 많은 시민과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구갈레스피아에서 개최됐다. 이날 축제는 1부 ‘아

빠와 함께 걷기대회’와 2부 ‘가족축제’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 ‘아빠와 함께 걷기대회’는 아버지 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빠와 자녀, 가족이 함께 신갈천 일대를 걸으며 다양한 가족 미션을 수행했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걷고 대화하며 가족 간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나누었다.

유지영 센터장은 “우리 사회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가족 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평생 긍정적인 모습으로 남는

다. 아빠들의 의미 있는 발걸음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가족축제’에서는 구갈레스피아 일원에 ▲VR 체험 ▲가족 슬로건 만들기 ▲키링 제작 ▲세계의상 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설치해 주말 나들이를 나온 참가자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특히 가족이 함께 즐기는 매직버블쇼와 세계 각국의 악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퍼커션 타악기 공연은 현장 분위기를 한층 뜨겁게 달궜다.

가족사랑 슬로건 공모 부스에도 참가자들이 몰렸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가

족이 함께 하면 따뜻해요’ 등 다양한 문구를 응모했다. 유지영 센터장은 “이번 축제는 세대와 가족이 함께 어울리며 지역사회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가족 가을축제’는 용인시가족센터의 대표적인 가족 문화행사로, 지역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가족친화형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Thư viện công cộng lớn nhất cả nước, bao gồm cả cư dân nước ngoài – “Thư viện tỉnh Gyeonggi” chính thức mở cửa

Thư viện tỉnh Gyeonggi (Thống đốc Kim Dong-yeon) – thư viện đại diện cấp tỉnh của Gyeonggi – cuối cùng cũng đã chính thức mở cửa vào ngày 25 tháng 10.Nằm tại quận Yeongtong, thành phố Suwon, Thư viện tỉnh Gyeonggi đã được người dân mong đợi từ lâu và được gọi bằng nhiều tên như: ▲Thư viện chưa từng có trên thế giới ▲Thư viện của các thư viện ▲Thư viện công cộng lớn nhất Hàn Quốc ▲Thư viện khí hậu v.v...Sau hơn 9 năm chuẩn bị, thư viện cuối cùng đã chính thức mở cửa đón công chúng.

Thư viện tỉnh Gyeonggi khác biệt rõ ràng so với các thư viện công cộng truyền thống ở chỗ, không chỉ là nơi đọc sách, mà còn hướng tới việc trở thành một nền tảng mở, nơi người dân có thể học tập, sáng tạo và trải nghiệm cùng nhau.

Đối với cư dân nước ngoài hoặc gia đình đa văn hóa quan tâm đến việc giáo dục con cái, việc thường xuyên đưa con đến thư viện để đọc sách cùng nhau là rất quan trọng.Những đứa trẻ đọc nhiều và yêu thích sách chắc chắn sẽ học giỏi hơn và trở thành những nhân tố quan trọng của xã hội trong tương lai.

Thư viện tỉnh Gyeonggi – Thư viện công cộng lớn nhất Hàn Quốc

Tổng kinh phí xây dựng Thư viện tỉnh Gyeonggi lên tới 122,7 tỷ won, với tổng diện tích sàn 27.795m² (gồm 5 tầng trên mặt đất và 4 tầng hầm). Đây thực sự là thư viện công cộng có quy mô lớn nhất trong cả nước.

Từ tầng hầm 2 đến tầng hầm 4 là bãi đỗ xe, và khách đến tham quan được đỗ xe miễn phí trong 2

giờ.Từ tầng hầm 1 đến tầng 5 trên mặt đất là không gian đọc sách, trải nghiệm, trưng bày và sáng tạo, được thiết kế để phục vụ đa dạng nhu cầu của người dân.

Thư viện hiện có tổng cộng 344.216 cuốn sách, trong đó có 148.181 cuốn sách in và 196.035 cuốn sách điện tử.Tỉnh Gyeonggi có kế hoạch trong vòng 5 năm tới sẽ mở rộng bộ sưu tập lên đến 550.000 cuốn, bao gồm 250.000 sách in và 300.000 sách điện tử.

‘Không gian bao dung’ trên tầng 2 của Thư viện tỉnh Gyeonggi, ‘Không gian bao dung’ là không gian mở, nơi trẻ em, thanh thiếu niên và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bao gồm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cùng nhau vui chơi và trải nghiệm.

Tại “Làng Sách Bạn Bè Thế Giới”, thư viện đã bày biện nhiều loại sách được xuất bản bằng 22 ngôn ngữ, bao gồm tiếng Anh, Tây Ban Nha, Pháp, Việt, để các cư dân nước ngoài đến thư viện cũng có thể sử dụng tự do.

Thư viện cũng giới thiệu dịch vụ đọc sách mới dành cho trẻ em. Đây là dịch vụ AI đọc sách, trong đó trí tuệ nhân tạo có thể học giọng nói của gia đình và đọc sách cho trẻ bằng giọng đó.

Ví dụ, nếu mẹ đọc một phần cuốn sách, AI sẽ học giọng nói của mẹ và đọc phần còn lại hoặc các cuốn sách khác bằng giọng mẹ. Dịch vụ này có thể lưu giọng của tất cả các thành viên trong gia đình, bao gồm bố, ông, bà.

Sử dụng thư viện cũng rất tiện lợi!

Thư viện tỉnh Gyeonggi được vận hành trong giai

đoạn thử nghiệm từ ngày khai trương đến cuối năm nay.

Từ thứ Hai đến thứ Sáu: mở cửa từ 10 giờ sáng đến 9 giờ tối.

Thứ Bảy và Chủ Nhật: mở cửa từ 10 giờ sáng đến 6 giờ chiều.

Sau khi giai đoạn thử nghiệm kết thúc, tỉnh Gyeonggi sẽ quyết định giờ hoạt động chính thức dựa trên ý kiến của người dân.

Hệ thống thành viên được chia thành thành viên thường và thành viên cư dân tỉnh.

Chỉ cần xác thực danh tính thật là trở thành thành viên thường.

Nếu xác thực nơi cư trú, bạn sẽ trở thành thành viên cư dân tỉnh.

Trong giai đoạn thử nghiệm, thành viên thường có thể mượn 3 cuốn sách mỗi lần với thời hạn 15 ngày.Từ năm sau, sẽ áp dụng chế độ mượn 5 cuốn mỗi lần và có thể gia hạn 7 ngày.

Việc mượn và trả sách được thực hiện thông qua kiosk 키오스크, có thể điều chỉnh độ cao để tiện lợi cho trẻ em và người khuyết tật.

Thành viên cư dân tỉnh sẽ được hưởng tất cả các dịch vụ mà thành viên thường có, cộng thêm dịch vụ mượn sách điện tử trong 15 ngày.

Ngoài ra, thư viện còn vận hành dịch vụ giao sách miễn phí để mang đến sự tiện lợi cho phụ nữ mang thai, trẻ em dưới 12 tháng tuổi và người khuyết tật đã đăng ký, giúp họ mượn và trả sách dễ dàng hơn.

Website: www.library.kr

〈한글 기사 1면, 인터넷에서 경기외국인SNS기자단을 검색하세요〉 경기외국인SNS기자단

法务部, 支援确保企业所需人才... 韩国学相关专业韩国语能力优秀的外国人入境韩国将变容易

今后学习韩国学相关专业的外国人如果具备6级话题的实力, 进入韩国将变得容易。

法务部 (部长郑成浩) 表示, 为强化海外进军企业的全球竞争力, 应产业界要求让当地有前途的人才参加国内实习课程, 制定了3项制度, 并从10月29日开始实施。

第一, ①海外大学韩国学相关专业韩国语能力最优秀者 (topic 6级) 和 ②世界大学排名前200名的大学毕业生等放宽或免除求职·就业签证条件, 给予更自由的国内求职、就业机会。

其中包括越南、中国、泰国、日本、印度、印度尼西亚、马来西亚、新加坡、菲律宾等9个国家QS排名前1000名的理工科大学。这些大学申请求职 (D-10-1) 签证时免

除分数制及财政条件, 审查特定活动 (E-7) 签证时免除专业及经历要求。

③29岁以下的青年, 拥有以上9个国家QS排名前1000名的大学理工科学士以上学位, 具备TOPIK2级相当韩语能力的外国人, 在申请求职 D-10-1) 签证时给予加分 (20分), 在审查特定活动 E-7) 签证时免除经历要求。

第二, ①进军海外的韩国企业通过与当地大学进行产学研合作, 赞助、培养的学士课程3年级以上 (包括硕士、博士) 在校生成和②为了让被海外法人聘用的外国人才参与国内总公司实习, 培养专业力量, 新设了“企业定制型实习 (K-Trainee) 项目”。

该制度以之前所说的亚洲9个国家为对象, 计划在

试运营2年后决定是否扩大实施。该项目外国人不能申请, 韩国企业将向所在地管辖的出入境·外国人官署申请。第三, 法务部为了支援国内大学毕业留学生的就业衔接及定居, 还改善了求职 (D-10) 签证制度。将现有的求职 (D-10) 签证只能滞留2年扩大到3年, 并将求职实习期限与之联动扩大, 反映了现场的需求。

法务部长官郑成浩表示: “倾听产业界的声音, 为帮助韩国企业培养和录用有潜力的人才提供多种流入途径, 并制定了将人才送回海外当地法人, 强化企业竞争力的政策”, “今后也将反映产业界的实际需求, 制定多种确保人才及国内定居支援政策”。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김용국)는 지난 10월 19일 기흥레스피아호수공원축구장에서 ‘2025 이주민 축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축구 경기뿐 아니라 다양한 부스도 함께 운영됐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병과 피부질환 검

진 등 전문 상담 ▲용인서울병원은 응급 의료 지원 ▲생활 편의 안내 부스(GME, E9pay, SBI Cosmoney 등) ▲미얀마 전통음식 체험 ▲16개 팀 쉼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즐거움을 더했다.

개회식에서는 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김상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이태호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장, 미얀마 축구협회장 타웅 툰, 기획총괄 다비드, 심판총괄 조웨이린의 축사와 감사장 수여를 통해 참가자들의 열정을 북돋웠다.

김상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축구 대회는 이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이다”고 밝혔다. 이태호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사무장은 “축구는 국적과 문화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힘이 있다. 오늘 이 행사가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국 센터장은 “앞으로도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는 국가별 자조모임과 체육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이주민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화합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문화와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연결 고리로서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 즐겨요

용인시가족센터, 한부모가족과 가을나들이 체험 활동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지난 10월 18일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과 함께 양평 외작집체험마을로 나들이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날 나들이에는 부모와 자녀 총 30여 가구가 참여했으며,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과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여 가족들은 전통 놀이, 농촌 체험, 요리, 공동 미션 수행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했다.

특히 이번 나들이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과 체험 미션이 중심이 되어, 아이들은 성

취감을 느끼고 부모는 자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일 기회를 얻었다.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서로 더 가까워진 것 같다.”라며 “바쁜 일상 속에서 오롯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니 힐링이 되었다.”고 말했다. 유지영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나들이가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가족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시설로, 용인시 가족복지증진을 위해 가족관계, 가족 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의 전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용인특례시, ‘놀고 웃으며 소통하라!’ 온라인 특강 수강생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놀고 웃으며 소통하라!’를 주제로 한 ‘2025년 온가정학교’ 온라인 특강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온가정 학교’는 용인시 평생학습관이 운영하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정 경영과 자녀 양육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시민들에게 유익한 지식과 사례를 전하는 강연이다.

이번 특강에는 ‘회복과 성장’ 대표이자 ‘가족코칭연구소’ 소장인 염은희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웃는 부모, 행복한 아이’, ‘엄마 해방일지’ 등의 저서를 집필한 가족코칭 분야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염 대표는 ▲부모 마음 셀프 코칭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웃는 엄마, 행복한 아이 등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소통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용인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s://ill.yongin.go.kr>)에서 선착순 120명까지 받으며, 신청이 완료된 참가자에게는 문자로 강의 접속 링크가 발송된다. 강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만큼 다문화가족도 참여해 불만하다.

김영의 기자



연천군가족센터, ‘DMZ 세계인 거리문화축제’ 개최...내외국인 다양한 문화 공존의 기회 마련



연천군가족센터(센터장 조금량)는 지난 10월 19일 연천역 광장에서 ‘제3회 DMZ 세계인 거리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군인가족 및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지

는 화합과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연천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군인아빠-자녀 도전골든벨을 진행했다. 아빠와 자녀가 협동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았다.

연천군 기관장들과 다문화가족, 군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모델이 되어 펼치는 ‘패션하모니’ 패션쇼도 내외국인의 눈길을 끌었다.

세계음식문화축제도 열려 베트남 쌀국수, 반미와 태국의 팟타이, 한국 음식인

김밥, 떡볶이, 식혜 등이 판매됐으며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장이 됐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축사를 통해 “다양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이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조금량 연천군가족센터장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며 “더 많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연천군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윤종영 의원도 “연천군가족센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늘 생각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금량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지원하고 참여해주신 연천읍행정복지센터, 연천읍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너무 감사드리며, 가족 간의 사랑과 소통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경험할 수 있고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천군가족센터 가족지원 1팀(031-835-00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김영의 기자

연천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군민 약 4.4만명, 매월 15만원 받는다



경기도는 연천군이 정부의 '2026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연천군(경기), 순창군(전북), 신안군(전남), 영양군(경북), 남해군(경남), 청양군(충남), 정선군(강원) 등 7개 지역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실험적 기본소득 제도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될 예정으로 지급 대상은 시범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 전체다. 다문화가족도 이 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앞서 연천군이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연천군이 부담해야 할 지방비 절반(전국 최고 비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하는 정부의 농어촌 기

본소득 시범사업 구조가 연천군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업시행에 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연천군 예상인구 약 4만4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며, 도는 연천군에 연간 약 24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연천군-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경기연구원-지역화폐운영대행사' 간 협의 채널을 구축해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운영방식, 지역균형 발전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연천군이 최종 선정된 것은 도와 시군이 함께 만

들어낸 성과"라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대표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2년 이재명 지사 재임 시절 연천군 청산면에서 전국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시행, 삶의 만족도, 사회적 교류, 인구 증가 등 다양한 지표에서 효과를 보였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성과는 군민과 함께 이뤄낸 결과”라며 “군민의 참여와 행정의 추진력이 만나 농어촌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롤모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의 기자



과천시 그린학습자 지원 토론회

과천시의회, 일부 다문화가정 등 자녀 지원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30일 과천시청 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과천시 그린학습자 지원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윤화 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구성됐다.

학습 속도가 느린 아동과 청소년, 청년이 제도 밖에 방치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과천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관련 제도, 국내외 사례, 법적 기반 등 다층적인 관점에서 토론이 이뤄져 논의의 깊이와 완성도를 높였다.

주제 발표를 맡은 강수연 은평햇살아동발달센터장은 그린학습자의 정의, 생애주기별 특성, 해외 정책 동향 등을 제시하며 “한국도 법적 정의와 통합 정책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광식 경기도 평생교육과 팀장은 경기도의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화를 위한 지역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짚었다.

다. 이학준 과천시장애인복지관장은 민간 네트워크 기반의 ‘느리지만 괜찮아’ 사업 사례를 소개하며, 포용의 개념을 부각시켰다.

마지막으로 정하늘 꿈나눔과천지역아동센터 학부모는 그린학습자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성장한 사례를 소개하며, 다문화·그린학습 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과천시에 요청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례 제정, 실태조사, 예산 반영 및 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제언을 넘어 법·제도적 대안까지 포괄한 심층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토론자들은 그린학습자가 ‘배움이 느린 존재’가 아니라, ‘다르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인식 전환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토론회 자료는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정책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우윤화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린학습자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었다”며 “이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과천시, '공유냉장고' 문 열어

시민 누구나 가공식품 기부하고 이용 가능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과천지속협)는 지난 10월 20일, 과천종합사회복지관 카페 ‘과수원’ 앞에서 ‘과천 공유냉장고 오픈식’을 열고, 시민이 함께하는 나눔과 자원순환 실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손성락 과천지속협 시민대표, 박찬정 과천종합사회복지관장, 손병남 과천도시농업지원센터장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사업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과천 공유냉장고’는 나눔으로 채우고, 함께 지키는 지속 가능한 과천을 목표로 하는 자원순환형 나눔 냉장고다. 시민 누구나 식재료나 가공식품을 자유롭게 기부하고 이용할 수 있

으며, 작은 나눔이 모여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활 속 기후 행동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과천지속협을 중심으로 지역 내 기관이 협력해 운영된다.

과천종합사회복지관은 공간을 제공하고, 과천도시농업지원센터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재배한 농산물을 기부로 연계한다.

냉장고의 위생 관리와 식품 정리, 정기 점검은 과천지속협 위원과 시민 자원봉사자가 함께 맡고 있으며, 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 시간 2시간이 인정되고 간식이 제공된다.

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과천지속협 사무국(02-503-82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공유냉장고는 단순한 나눔을 넘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자원순환 실천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 전통소리 느껴요

과천시전통예술단, 경기소리극 ‘삼설기’ 열려

다문화가족도 한국의 전통소리를 느낄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과천시는 오는 11월 5일과 6일 양일간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과천시전통예술단의 창작 경기소리극 ‘삼설기’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5일 저녁 7시 30분, 6일에는 오후 3시와 저녁 7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이틀간 총 3회 진행된다.

‘삼설기’는 1848년 조선 헌종 연간에 유행한 풍자문학으로, 소설·우화·가사 형식을 넘나들며 당시 사회의 모순과 인간 군상을 날카롭고도 익살스럽게 비춘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중 세 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경기소리와 결합한 새로운 형식인 한국적 뮤지컬, ‘경기소리극’으

로 선보인다. 과천시전통예술단은 지역 무형유산인 경기소리, 줄타기, 무동답교놀이 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창단된 민간 예술단체로,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대표 예술단체로 선정되어 올해 국비 1억 7천만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공연은 지난 작품 ‘대동가극단의 귀환’에 이은 두 번째 공식 무대다.

공연에는 경기도 무형유산 경기소리(긴잡가) 보유자 임정란 명창, 국가무형유산 줄타기 보유자 김대균 명인, 경기도무형유산 과천무동답교놀이 보유자 오은명 명인이 특별 출연해 공연의 깊이와 완성도를 더한다.

전석 1만원이며, 과천 시민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하성 기자

11월 가족사랑의 날

가족이 함께하는 사랑의 막대과자 만들기

대상

과천시 거주 또는 재직자 26가족
(선착순 접수이나 가족구성원을 묶어서 신청한 가족 우선)

신청기간

10월 31일(금) 오전 11시 ~ 11월 3일(월) 오후 4시

신청방법

과천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가족구성원 포함하여 프로그램 신청)

활동방법

만들기 kit 수령
(11/5~11/7)

가정에서 활동 진행
(kit 수령 후 ~ 11/16)

결과 및 설문조사 제출
(11/16 까지)

유의사항

- 우선순위가 있는 활동으로 "대상" 기준 확인 후 신청
(신청 시 팝업창에 뜨는 번호와 실제 접수 번호는 다름)
- 접수 기간 완료 후 확정 가족 전화 안내,
대기 가족 문자 안내
- kit 수령 후, 결과 제출 필수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의 마음 어루만지는 성남시가족센터 사업!

성남시가족센터, 여성용품 후원 전달·부부정서지원·마음챙김 힐링클래스 등 진행

따뜻한 나눔 실천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지난 10월 28일,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와 미래생활(주)로부터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여성용품 50박스(600팩 상당)를 후원받았다.

이번 후원은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후원받은 물품은 관내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전달되었다.

종합위생용품 전문기업 미래생활(주)은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꾸준히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또한 산모·여성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

를 위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성남시가족센터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와 미래생활(주)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건강한 삶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부정서지원 사업

성남시가족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중년부부를 대상으로 양평 미리내 힐링클럽에서 ‘중년부부 힐링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여 부부들은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 신체와 마음의 긴장을 풀고 오감체험 활동을 통해 서로에게 가장 고마웠던 순간을 전하며 따뜻한 공감과 소통

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년부부들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함께하는 여유를 즐기며, 연애 시절의 설렘과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느껴보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마음챙김 힐링클래스

성남시가족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상담대기자 집단상담 「마음챙김 힐링클래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컬러테라피 집단상담과 컬러향수 만들기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의 정서를 교류하며 정서적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031-756-9327 송하성 기자, 자료 성남시가족센터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실시

성남시 ‘임산부·배우자·양가 부모’까지

성남시는 오는 11월 3일부터 임산부·배우자·양가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시행한다.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사업이다. 다문화가정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백일해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인 호흡기 감염병이다. 다른 사람의 기침으로 전파된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치명적이지만,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함께 사는 가족도 백일해 예방접종으로 면역을 형성하면 신생아를 간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앞선 10월 13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말까지 두 달간 1800명 접종을 예상해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임신 27주~36주의 임신부 △출산 후 60일 이내의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임산부와 배우

자의 양가 부모(성남시 등록 거주자)다.

임산부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성남 시민이면 부부 둘 다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

임산부나 배우자가 성남 시민이 아니면, 양가 부모는 성남에 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접종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를 통해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을 보내 대상자 등록을 한 후에 가까운 병의원(현재 기준 229곳 지정)을 찾아가면 된다. 접종 때 1명당 4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전액 성남시가 부담한다.

성남시 보건소 관계자는 “백일해는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환”이라며 “신생아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 감염병을 예방해 건강한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산부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접종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을 받아야겠다. 송하성 기자



2025년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상담실 이용안내



이용대상

성남시민 및 성남시 소재 직장인
※ 타 시민 이용 가능하나, 성남시민 우선 지원

**상담
지원내용**

- 상담 주제 가족 및 구성원의 심리정서지원상담
- 상담 비용 무료
- 상담 방법 전화상담 / 사이버상담 / 면접상담

전화상담

- ☎ 031-755-9338
- 🕒 운영시간 월-금 9:30~13:30
※ 13:00 이후 수신 불가

사이버상담

- 🌐 seongnam.familynet.or.kr
- 🕒 운영시간 상시 운영
※ 주말 제외 4월 이내 답변
※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면접상담

- 🕒 운영시간
주간) 월-금 09:30~18:00
야간) 월-목 18:30~20:30
주말) 토 10:00~15:00
- 📍 운영장소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59
수정커뮤니티센터 1층
※주차 비용 지원 불가
- 📝 신청방법
전화상담 또는 사이버상담 신청

문의사항

가족성장팀 ☎ 031-756-9327



성남시가족센터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10월 18일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꿈의 무용단’과 연계한 무용가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된 ‘다재다능’ 프로그램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참여 아동들은 실제 무용단의 전문 강사진과 함께 무용수의 기본 동작을 배우고, 무용가의 열정과 팀워크를 몸으로 느끼며 무대 예술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는 시간이 됐다. 참여 아동들은 “너무 재미있었다”라며 “다음에도 또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무용단 연계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자녀들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재다능’ 프로그램은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미래직업 설계 ▲전문직업 체험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 ▲부모교육 등 다문화가족의 통합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역량강화팀(070-8831-8432)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스트레스 날리고, 유대감 UP 화성 부모교육 자조모임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10월 25일 온가족보듬사업 일환으로 참여 가정의 양육 스트레스 완화와 가족 유대감 형성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가족만세센터에서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교육과 자조모임이 진행됐다. 부모교육은 각 가정의 양육 고충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부모의 양육 감정 이해와 긍정적인 훈육 전략을 배우는 시간이 됐다. 부모들은 교육을 통해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건강한 양육 방향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동들은 부모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영화 관람을 통해 문화체험의 기회를 갖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 베이킹 자조모임은 피자과 타르트를 만들고 협동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 유대감과 화합을 다졌다. 센터는 11월 1일 송산면 꽃마루농원에서 농촌체험(두부 만들기, 떡메치기 등)을 진행하며 참여 가족의 즐거움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온가족보듬사업’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로, 사례관리.가족상담.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 기능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화성시가족센터

영화 음악 콘서트

-시네마 인 뮤직-

2025.11.22.(토) 11:30~12:30
화성시가족센터 1층 로비(화성시 향남읍 평22길 16)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관람비
무료

공연팀
인뮤직

주최 및 문의
화성시가족센터
031-352-1214(2번/친화사업팀)

접수방법
사전접수 또는 현장에서 명단 작성
※사전접수자 수가 많을 경우 현장 접수 불가

공연 내용
영화 속 장면 메시지 소개 후 OST를 실제 연주로 만나기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피아노)
선물 증정 퀴즈 이벤트
러리랜드, 해리포터, 키쿠지로의 여름, 캐리비언의 해적, 어벤저스, The Mission, 조스, Cinema Paradiso OST 등
※만우절 당일 공연, 평온 초기 소관 통수 없음-4.

접수방법
사전접수 또는 현장에서 명단 작성
※사전접수자 수가 많을 경우 현장 접수 불가

공연 내용
영화 속 장면 메시지 소개 후 OST를 실제 연주로 만나기
(바이올린, 플루트, 첼로, 피아노)
선물 증정 퀴즈 이벤트
러리랜드, 해리포터, 키쿠지로의 여름, 캐리비언의 해적, 어벤저스, The Mission, 조스, Cinema Paradiso OST 등
※만우절 당일 공연, 평온 초기 소관 통수 없음-4.

사전접수 바로가기

텐트에서 즐기는 "캠핑 속 연주회"
영화 속 OST를 직접 만나는 "최고의 힐링 시간"

화성특례시 화성시가족센터

"Hello~!! 나의 중년"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아무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중년 남성들의 외로움과 힘듦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장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향상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상
의사소통 및 감정표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년남성

내용
▶ 삶의 흐름을 되짚고 "내 안의 분노 / 외로움 / 두려움" 탐색
▶ 자기회복력 강화와 가족 관계 및 대화의 패턴 이해
▶ 남성들이 말하기 어려운 '감정', '취약함'을 허용하는 구조 설계
▶ 목공(캠포도마 만들기)을 통해 내 안의 스트레스 해소

비용
전액무료(도시락 & 간식제공)

신청방법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
hsfc.familynet.or.kr (★홈페이지 가입 필수)

운영일정 안내

구분	1회차	2회차
운영일시	나를 찾아가는 시간 2025.07.12.(토)10:00~18:00 목공체험 2025.07.18.(금)19:00~21:00	나를 찾아가는 시간 2025.11.15.(토)10:00~18:00 목공체험 2025.11.28.(금)19:00~21:00
운영장소	유엔아이센터 교육실(병점소재)	가족만세센터 교육실(향남소재)
신청인원	8명	8명
신청기간	2025.06.16.(월)~선착순 마감	2025.10.13.(월)~선착순 마감

문의전화 070-7774-7088 (상담사레팀)

Три вида льгот в области воспитания, ухода и культуры, доступные только для мигрантов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Расширение поддержки по оплате детского сада дл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С октября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увеличивает размер субсидии и на оплату детского сада дл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с 100 000 вон до 150 000 вон в месяц.

Провинция с 2023 год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ежемесячную помощь в размере 100 000 вон детям-иностранцам (в возрасте от 0 до 5 лет), посещающим детские сады в регионе, чтобы все дети могли расти в равных и стабильных условиях.

Однако, учитывая рост цен и расходов на уход за детьми,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овысить размер поддержки на 50 000 вон.

Условия получения помощи остаются прежними:

Ребёнок должен быт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иностранцем в возрасте от 0 до 5 лет, посещающим детский сад в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И ребёнок, и его опекун должны проживать в Кёнгидо не менее 90 дней.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субсидию, опекун подаёт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ддержку и документы, подтверждающие регистрацию иностранца, в детский сад, а также оплачивает услуги через карту «Национальное счастье» (국민행복카드).

Го Хёнсук,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политики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сказала: «Расширяя поддержку оплаты детского сада, мы хотим снизить бремя родителей-иностранцев и обеспечить рав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всех детей, чтобы каждый мог расти здоровым и без дискриминации.»

Подача заявок на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Доход за уход за детьми в сообществе»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сообщила, что через год после запуска программы «Адон-дольбом кихвэ-содык» («Доход за уход за детьми в сообществе»)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вующих

сообществ и детей выросло более чем в шесть раз.

Эта программ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ддержку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добровольно организуют местные сообщества для ухода за детьми, особенно там, где отсутству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омощь.

Она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ёт социальную ценность ухода за детьми соседями безвозмездно и выплачивает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чтобы стимулировать участие.

Размер выплат: При 30 часах в месяц — 200 000 вон, / При 15 часах и более — 100 000 вон.

Многоязычные семьи также могут создавать такие сообщества — по национальному признаку или между людьми, которым комфортно вместе.

В первый год (2024) выплаты получили 57 жителей из 23 сообществ, а в сен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 уже 520 жителей из 150 сообществ в 29 городах и уездах.

Количество детей, получивших уход, выросло с 524 до 3 403 человек.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ежемесячно с 1 по 10 число на сайте [경기민원24 \(gg24.gg.go.kr\)](http://gg24.gg.go.kr).

«Dodamso» открывает площадку для камерных свадеб

Провинция Кёнгидо открывает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Dodamso»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небольших свадеб и ищет первую пару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церемонии.

Ранее это было губернаторское жильё, но теперь здание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о в культур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для жителей, где проходят концерты, выставки и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Свадьбы проводятся круглый год, по субботам и воскресеньям, одна церемония в день.

Обычно свадьба проходит в садовой зоне, а при плохой погоде или зимой — в большом банкетном зале. <중략, 한글 기사 자란호 1면>

네팔 전통문화로 하나 된 하루

화성외복, 네팔 공동체와 ‘띠하르 축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센터 3층 강당에서 네팔 공동체 회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네팔 자국문화교류 행사-띠하르 명절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네팔의 대표 명절인 띠하르를 함께 기념하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다지고, 지역사회에 네팔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띠하르 소개를 시작으로 센터장 인사말, 내빈 축사, 네팔 전통춤과 노래(데우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직접 준비한 폴라우, 셀로티, 어짜르, 블랙 밀크티 등 네팔 전통음식을 나누며 고향의 맛과 정을 함께 나누었다.

이날 현장은 음악과 춤, 웃음으로 가득 찼으며, 참가자들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손녕희 센터장은 “이번 띠하르 문화교류 행사는 네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자긍심과 소속감을, 타국 주민들에게는 네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라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국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환경 지키는 공동체 의식 UP

문화더함공간서로, 환경교육 플로깅 활동



문화더함공간서로(서로장 김유리)는 지난 10월 19일, 화성시환경재단과 협력해 ‘환경교육 및 플로깅’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배우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을 경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화성시환경재단 전문 강사의 환경교육을 통해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의 올바른 방법 등 환경보호의 기본 원칙을 배웠다. 이후 발안

천 일대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진행, 지역 환경을 스스로 가꾸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네팔 출신 참여자는 “한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환경을 위해 땀 흘릴 수 있어서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분리수거를 잘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베트남 출신 참여자는 “친구들과 함께 플로깅을 하니 즐겁고 유익했다”며 “앞으로도 환경정화 자원봉사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서로장은 “이번 활동은 외국인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며 환경을 지키는 공동체 의식을 다진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목공 체험으로 가족소통 실천

화성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날 프로그램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다목적강의실에서 가족사랑의 날 ESG 연계 목공 체험 프로그램 ‘나무로 있는 지속가능한 하루’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화성 거주 10가족, 총 37명이 참여했으며,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형 활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과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삶의 가치를 가족 단위에서 실천해보는 시간이 됐다.

참여 가족들은 자투리 나무를 활용해 생활 소품을 제작하며 목공 체험의 즐거

움을 느꼈고, 제작 과정에서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함께 만든 작품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 의미 있었다”라며 “환경보호에 대해 아이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가족사랑의 날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가족이 함께 환경과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ESG 가치와 가족 친화적 문화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족사랑의 날은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월 1회 진행되는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Hello~!! 나의 중년, 길 찾기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오는 11월 15일과 11월 28일 양일에 걸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내 거주 중년남성 8명을 대상으로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2’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상담은 아무에게도 터놓지 못하는 중년남성들의 외로움과 힘듦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장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향상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15일 나를 찾아가는 시간, 11

월 28일 목공 체험(도마 만들기)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참여자 모집 중이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화성시에 거주하는 중년남성들의 의사소통 개선 및 갈등을 완화하고 가족과 직장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가족보듬사업 부부집단상담 프로그램 관련 문의 사항은 화성시 가족센터 상담사례팀(070-7774-7088)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어린이집 아동 대상 오감체험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10월 22일 센터 1층 다목적가족소통교류 공간에서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오감 프로그램 ‘화성시가족센터에 놀러 오세요’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첫 시간으로 장안어린이집 6~7세 아동 18명이 참여해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다양한 활동을 체험했다. 아이들은 부직포 저고리에 직접 그림을 그리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고, ‘나’를 닮은 한복 토끼 키링을 꾸미는 등 오

감을 자극하는 활동에 즐겁게 참여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화성시가족센터 다목적가족소통교류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경험과 따뜻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화성시가족센터에 놀러 오세요’는 어린이집과 연계 활동으로 총 5차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의 기자

아이 언어발달, 부모와 즐겁게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 부모교육 실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10월 25일 센터 3층 동아리실에서 언어발달지원사업 소그룹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그림책과 놀이를 활용하여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방법을 주제로, 부모들이 가정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언어 자극 및 놀이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음운론적 사고(소리 단위의 인식) 이해, ▲그림책과 놀이를 연계한 언어 자극 방법 학습 ▲거꾸로 말하기, 말 잇기 등 언어 발달을 더욱 적극적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제공했다.

오는 11월 8일에는 ‘신명나게 그림책 읽고, 몸과 마음을 다독이는 놀이치유’는 주제로 부모-자녀 회복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에서는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통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언어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본 센터와 병점 분소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진행되며, 아동의 나이와 발달 수준에 맞춘 개별 교육을 통해 어휘.구문 발달, 대화 능력 및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특성화사업팀(070-8831-8622)으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동물과 마음 나누며 소통해요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자녀.학부모 대상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10월 18일 다문화가족 자녀.학부모와 함께 동물 애니멀 테마파크에서 동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에서 기초학습을 공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아동들이 그림책이나 영상으로만 보던 다양한 동물을 직접 만나고 먹이 주기 체험을 통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는 체험활동이다.

이날 한 참여 아동은 “작은 새들이 내 손에 앉아서 먹이를 먹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카피파라를 직접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라며 “친구들과 토끼와 거북이를 함께 봐서 즐거

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아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글,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체험학습을 통해 또래 집단과 소통하고 정서적 교감도 나누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와 학부모 모두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은 동탄, 새솔동, 화성시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다양한 문화 체험과 학부모 교육, 학부모 자조모임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70-8831-8623

김영의 기자





가족품앗이 활동이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축이 되도록!

화성시가족센터, 품앗이 성과 공유회&캠프닉 “다녀왔어요” 화합 및 공동체 의식 다져



화성시가족센터는 지난 10월 18일 ‘품앗이 성과 공유회& 캠프닉’ 행사를 어썬월드 동탄점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품앗이 활동에 참여한

131가족,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가족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우수품앗이 13개 그룹의 올해 활동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우수품앗이는 아빠 참여, 활동일지 제출 준수, 프로그램 참여율 등 다양한 기준을 토대로 선정됐으며, 발표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 사례를 품앗이 회원들이 직접 소개했다. 여러 가족이 모여 활동 사례를 나누며 다른 품앗이 가족들에게

도 참여 동기와 실질적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동체 내 활동 지속과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진행된 캠프닉 프로그램에서는 미니 운동회, 바비큐 파티, 자유체놀이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우수품앗이 발표를 보며 우리 품앗이도 내년에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 행복했다.”라며 “품앗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이웃들이 더

욱 가깝게 느껴졌고, 아이들이 더욱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 뜻깊었다.” 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품앗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할 수 있어 뿌듯하다. 앞으로도 가족품앗이 활동이 지역 공동체의 든든한 축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가족품앗이 활동은 화성형아이키움터 사이트 가족품앗이 신규 신청을 통해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아빠랑 함께한 기쁨 수확” 다양한 농장 체험 실시

화성시가족센터, 아빠가 주체 되는 아빠품앗이 프로그램 운영해

화성시가족센터는 지난 10월 25일, ‘아빠품앗이’에 참여 중인 20가족과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화성시 양감면 소재 야기농부 체험장을 방문해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빠가 주체가 되는 ‘아빠품앗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체험 중심의 활동이 이뤄졌다.

참여 가족들은 ▲꿀고구마 캐기 ▲샤인머스켓 사베트 만들기 ▲자유놀이 ▲동물 먹이 주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도 교감하고 유대감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구마 캐기 체험에서는 아빠

와 자녀가 함께 협력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고, 샤인머스켓 사베트 만들기 활동에서는 직접 만든 음식을 함께 맛보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 참여 아들은 “우리 아빠랑 같이 캔 고구마가 제일 맛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제는 아빠들이 자연스럽게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일상 속 작은 실천부터 가족 중심의 돌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에서는 공동양육을 실천하는 가족품앗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특히 아빠품앗이 양성과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가족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버지의 돌봄 참여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 하반기에는 아빠품앗이 가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활동 중인 아빠품앗이는 총 11개 그룹, 28가족, 96명 규모로, 정기적인 모임과 소통을 통해 육아 경험을 나누고 있다.

김영의 기자

중국 전통문화 체험 언어.문화도 배워요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지난 10월 18일과 25일 10 차시로 중국 출신 다문화가족 자녀 9명을 대상으로 ‘이중언어교실-중국문화이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들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아동들은 제기 만들기, 만리장성 3D 입체 모형 만들기, 판다 인형 열쇠고리 만들기, 용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부모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중언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키웠다.

어머니와 함께 참여한 중국식 물만두 만들기 체험에서는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함께 향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참여 아동들은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비교해보며 부모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김영의 기자

